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을 말하다

2022. 7.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정책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울산을 말하다’를 내며

정책실

지방선거 이후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시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다.
그런데 많이 아쉽다.
대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큰데 반해 대안은 부족해 보였다.

집담회와 평가회,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접했다.
쓴소리도 있고, 위안의 글도 있었다.
새겨볼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하다]를 진행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 의견과 sns에 올라온 글,
집담회와 메일로 보내준 목소리들을 모아 정리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의 채택은 차기 시당 지도부에게 넘기고자 한다.
수렴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다.
현명하게 잘 추려내리라 믿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하다]는 pdf 파일로 당원 누구나 살펴볼 수 있게 시당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내려받아 살펴보면서 돌아봄의 소재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 평가회 당시 오프라인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 주신분들의 목소리는 영상녹화가 되어있
지 않아 담아내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하다]에 실린 글들은 시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당원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입니다. 제가 정리한 글 역시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 차례 ■

1. 울산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_ 오상택 4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을 말하다 _ 김창원 21
3. 6/1 울산 지방선거 집단 평가서 - 김형근외 7인 26
4. 내가 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_ 이만우 44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지역 집담회 정리 49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말하다 _ 당원들 목소리(시당 메일) 59

울산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제안자 : 오상택

1장 :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얼마 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통렬한 평가’를 시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시당의 전향적 접근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도권, 호남 상황과 별개로 험지라고 불리는 울산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어서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울산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 함으로써 아무리 광풍이 분다고 해도 추풍낙엽처럼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버티는 힘, 그리고 역 바람을 만들어 바람길을 돌릴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위해 저의 짧은 소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울산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는 대안정당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치지형은 동서의 지역균열과 진보 대 보수의 이념균열, 젊은세대 대 기성세대의 세대균열 등의 전통적인 균열구조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즉, 다원주의 강화, 탈물질주의에 따른 기존 갈등 축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으며, 이익(benefit)에 근거한 새로운 갈등 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현재 젠더갈등도 이익에 근거한 갈등 축이라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르겠고 진보든, 보수든, 모르겠고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을 최대한 채워줄 수 있는 정당 또는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방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보입니다.)

주지하듯이 유권자의 성향, 정치지형 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노선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답게 울산 시민들의 삶과 가계를 증진 시켜줄 정책 이슈·의제를 발굴하여 단순(simple)하고, 신속(speed)하며, 집요(strong)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답게”입니다. 탐욕스럽게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천민자본주의나 무분별한 개발이슈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개발이슈와 의제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 시장선거에 제시되었던 “부유식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무상전기 공급”은 기후위기 대응, 보편복지 가치 등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답게의 정책의제였습니다.

다만 무상전기와 연계한 이슈를 너무 늦게 띄우는 바람에 선거 전체에 집중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부유식해상풍력은 국힘과 차별되는 민주당다운 개발 의제였습니다.

즉, 어떠한 주제이든 울산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또는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민주당다운 개발을 선점하여 단순한 언어로 신속하고 끈질기게 울산 시민들에게 어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 욕망이라는 단어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다수는 국민의힘과 정치개혁 투쟁을 선명하게 전개하여 야성과 투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울산 민주당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와야 할 것은 민주당식의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밥상의 반찬이 늘어나며, 근심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민주당에서부터 찾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영역에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쌓아가며 동시에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인 견제와 대안적 비판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거센 바람과 고난에도 우리를 버틸수 있게 하는 무게 중심이 될 것입니다.

2장 : 인적 쇄신, "공직후보자 컷트제"를 제안합니다.

앞서 바람에도 최대한 버틸 힘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답게 방식의 개발, 이익을 통한 유능함으로(노선 변화) 울산 시민들에게 신뢰와 기대를 심어주자고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적 쇄신입니다.

울산 민주당이 변화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 세상의 변화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민주당은 긴장감과 창의성이 상실된 수동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센 사람에게 줄 서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민주당과 맞닿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변해야 강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직후보자 컷트제”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선거 직전 정당지지율보다 낮게 득표율을 받은 후보자는 다음 선거 입후보 원천불허.

그리고, 세 번 이상 출마한 선거에서 자신이 받은 득표율이 직전 선거보다 하향했을 경우 다음 선거 입후보 원천불허입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 등 교차 출마하여도 무조건 출마한 후보자의 받은 득표율에 기준함.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관리하나 지역에서 원칙에 부적합 후보라는 입장 공식적으로 전달)

기초의원 선거가 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상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후보자 복수)이기 때문에 정당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 번 이상 출마하였다 하더라도 가, 나 순번에 따라 득표율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자발적 인적 쇄신이 힘들다면 인위적, 강제적 수단을 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만 바라보고, 민주당의 가치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울산 민주당이 살길이고, 바람에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압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단어의 거침을 압니다.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급되어야만 하는 단어였습니다.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

만 울산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켜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 실효적 당원 교육 시스템 , "민주연구원 울산(부울경)분원" 제안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쇄신'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가냐는 '혁신'입니다.

세 번째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당원들과 만나면서 당원들이 느끼시는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알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다.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국내외 주요 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싶더라도 당에 물어볼 곳이 없다가 주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시당 교육연수위원회에서 당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원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낮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당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당원 맞춤형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중앙 국회의원들을 불러 사진찍기가 목적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나 우리 안에서 육성된 전문가를 발굴하여 당원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짜야 합니다.

둘째, 당원 교육 방식을 '다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찾아오는 오프라인 방식도 있지만 줌(zoom) 같은 화상 방식이나 유튜브 교육 영상 등의 온라인 방식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에 태워 당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들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당원들이 어디서든 쉽게 교육할 수 있는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당원 교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당원이 요구하면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당에 "민주연구원 울산 분원"을 요구하자입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민주연구원 부울경 분원"이라도 부울경 시도당과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힘지인 부울경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생산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울경에 전문적인 정책교육기관이 들어서면 보다 쉽게 당원의 교육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고,

울산에 필요한 정책생산과 전략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힘지를 격전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앙당에서도 그에 맞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만 찾는 지역은 이제 거부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장 : 조직, 시작이 반이다.

네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은 “필요하다, 필요없다”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민주당 깃발을 걸고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분들과 조직 강화에 나름 모범을 창출하신 분들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이 파트에 담았습니다.

(앞선 글이 너무 길고, 어렵다는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담겠습니다)

○ 다양한 사조직을 넓혀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자

- 동창회, 향우회, 종교 단체 등 연고 중심 사조직 항시 참여
-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사조직은 한 종목에 꾸준히 땀 흘리며 참여
- 주민 민원을 경청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며 끝까지 팔로업해라
- 주민 만남 시 전달할 정보들(날씨, 재난지원금, 울산페달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걸어 다니며 매일 만나라

○ 민주당 다음의 조직을 만들자

- 사회적 약자, 기후변화, 환경, 다문화 등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동체를 구성하자
- 예) “옥동 세제 공동체, 신정동 다문화가족 돕는 공동체, 마을도서관 만들기” 등
-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체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자

○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라

- 자신을 알리는 캐릭터를 개발하라
- 예) “옥동 신사=손종학, 새벽 종=최덕중, 병영 큰애기=김시현” 등
-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함으로 자기 정체성과 캐릭터를 구축

○ 카·페·밴 민심을 조직하자

- 카톡, 페이스북, 밴드 등 SNS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 조직 구성 필요
-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은 다 활용. 모르면 배워라.
- 지금은 홍보=조직인 시대
- 잘 조직된 SNS에 글, 사진 하나가 몇 백배의 효과를 발휘

지금까지 조직 강화에 모범을 보이셨던 분들의 제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으나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멈췄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조직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꾸준함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자.”였습니다.

울산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조직 강화 조금씩 높여갑시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훌륭한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웁시다.
그래서 강해집시다.

5장 : 소통 강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소통 강화”

소통은 당원분들께서 가장 불만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뽀족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부족하고 한 부분들이 제각기여서 당원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과의 소통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은 기존 플랫폼인 “밴드와 페이스북 페이지, 시당 홈페이지”로 대표됩니다. 제가 만난 당원들의 대부분은 “플랫폼을 더 늘리지 말고 기존 있는 것이라도 활용도를 높이자”가 중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높이 자입니다.

밴드 경우는 당원들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창구이지만 전체 당원의 참여도가 현격히 낮습니다. 현재 시당 밴드의 가입자는 765명, 전체 우리 당원 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가입률입니다. 낮은 가입률에 주요 원인으로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입니다.

이름/지역구/전화번호 뒷자리/직책이 구성되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고,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이 탈퇴가 되었고, 이후 재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률이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가입 시 당원으로 확인되면 단순히 실명만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서 시당 밴드 재가입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참가하는 당원들은 공적 영역에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문제나 판매, 판촉 등의 목적으로 밴드를 활용한다면 경고 후 글 삭제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강제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최대한 의견 개진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상호 간의 불편함과 얼굴 찌푸리는 행위는 지성인으로서 스스로 자제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밴드관리를 홍보소통위에 위임하고 밴드 제재를 완전히 풀어버리자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것은 추후 공론장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지만, 팔로우 701명 평균 좋아요 2~3개 전혀 호응이 없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삭제보다는 더 많은 팔로워 수를 늘려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광주시당 경우 팔로우 3천 명 평균 좋아요 15~20개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페이스북은 유지하는 것이 맞고, 더욱 많은 당원이 볼 수 있게 팔로우를 유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시당 홈페이지(웹 포함)는 기존 한 방향보다는 쌍방향으로 진화하자입니다. 제안한다면 홈페이지 기능에 익명으로 한 ‘토론 란’이나, ‘의견개진 란’을 추가적 탑재하여 당원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프라인 소통은 단순합니다. 시당의 의지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구상하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체육대회, 등반, 역사탐방, 플로킹,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시도들을 구상하여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을 말하다

작성자 : 김창원

지방선거 후 지역 내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의견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나 일부 주제에 한정된 것은 개인 역량의 문제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글은 '1. 공천시스템에 대하여, 2. 기초의원 선거구 '가' '나' 공천에 대하여, 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역할, 4. 원팀의 가능성, 5. 민주·진보 대연합에 대한 생각' 순서로 정리했다.

I. 공직선거 출마자 공천 시스템에 대하여

1. 현행 공천 시스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은 검증과 공천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비율도 맞춰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자는 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불복 경력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법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병역기피·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 등의 경력을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역시 15인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인사가 100분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여성과 청년비율도 갖춰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현행 공천시스템의 문제

1) 검증위원회와 공관위 구성에 대하여 (비례후보추천위 포함 /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위와 공관위 구성 권한은 시·도당에 있다. 검증위원과 공관위원 구성에 시·도당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관위에 시·도당위원장의 절대적 영향력하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검증 또는 공천과정에서 탈락된 후보들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는 시스템상 어쩔수 없는 구조다. 그러므로 검증위와 공관위 구성에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비례후보추천위원회도 포함)

울산의 경우 6개 지역위원회가 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2인(당내인사 1인, 당외인사 1인)을 추천하고, 시당위원장이 당외인사 1인(외부인사 50% 이상 규정 적용)을 추천하면 13인으로 구성 가능하다.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인사 등에 대한 위원 위촉이 어려움(외부인사들의 경우 공천심사 후유증으로 인해 한번 참여하고 나면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드물다.)을 분산시킴으로써 좀 더 다양한 계층이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비밀유지의무가 지켜질 것인가의 문제다. 공천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사적영역들도 살펴보게 된다. 이는 사인에서 공인으로 신분 이동이 되는 만큼 마땅히 감내해야 할 내용이다. 공천을 받는다면 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하겠지만, 공천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행사될 수도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장(옹호 또는 비판)으로 위원회 내의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 (이는 물론 시·도당위원장의 위원 추천 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비밀유지와 지역위원장의 과도한 개입 방지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위원회 추천방식의 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2) 공천과정에서의 당원 참여공간 확보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대한 규정이 있다. 경선방식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비율 5:5),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당원은 당의 핵심이다.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당원들의 적극성 발현 정도가 선거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온라인 소통이 생활화되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파괴할 수도 있고, 미디어의 전파력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힘은 더 크다. 전국적으로 양당 지지도는 3:3을 기본선으로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3:4 또는 4:3의 구도가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30%의 당원들을 끌어안은 속에서 +10%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당원들의 참여공간을 늘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당원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의식이 최고조로 발현되는 시기는 선거에 임박했을 때이다.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그 당을 평가한다. 당원들은 자당 선출직 공직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언론에 비칠 때면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결코 개인이 아닌 것이다.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당원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부터 당원들의 참여를 적극 담보해내자. 공직후보자를 뽑는 과정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당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세워내자. 당원의 힘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본선거에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힘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후보라는 자부심도 한 몫 한다. 후보를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당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알 수 있게 하자. 당원 의견이 반영되는 공천시스템(당원 경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공간을 열어주자.

3) 검증 및 공천결과에 대한 공개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공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본인의 정치철학, 활동계획을 공개하자. 범죄경력과 재산내역도 공개하자. 본인의 해명 기회도 부여하자. 당원경선을 제도화 시키고, 그 속에서 치열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였듯이 경쟁을 위한 상대후보에 대한 공격이 극단으로 치달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오히려 원팀 구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사항이다. 치열함이 없다고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경선과정에서의 문제로 형성된 감정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재검증과정이 될 수도 있다. 악화가 양화를 만들어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다.

공천과정과 결과도 공개하자. 공천신청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당원들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배제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공천신청자들 간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차피 경쟁자들 간 감정은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닐까?

4) 결론

당원투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천시스템을 제안하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구성되는 조직 중 일부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도 될 듯 싶다. 검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조직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검증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자. 공개범위와 내용은 검증위에서 정하면 된다. 검증대상 내용은 공모전에 미리 공개하고, 서류접수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공천 신청자별로 비교하여 공개하자. 검증위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후보도 왜 탈락되었는지 내용을 공개하자. 그래야 검증위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가 담보된다.

검증위를 통과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자. 기초단체장은 당원투표와 일반여론조사를 병행하자. 경선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면 된다.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청년과 여성에 대한 비율도 이야기 한다. 청년이라서, 여성이라서 경쟁력도 없는데 공천하는 것은 문제다. 이미 청년·여성·장애인·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특혜다. 당에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헌신해 온 사람들에게겐 무엇으로 그 희생의 시간을 보상해줄 것인가? 오히려 구태 또는 켄대, 기득권이라며 배척하려는 태도마저 보인다. 10%대의 지지율을 보일 때도, '민주당원이라면 장사 망친다'며 알리지도 못하면서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기반마저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닌가?

당당히 지역에서 실력을 키우고, 당원들에게 검증받고, 떳떳한 지역일꾼으로 나서자.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안착시키자. 예상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느날 갑자기 후보자는 사라질 것이다. 평상시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당원관리에도 나설 것이다. 당원들 역시 서서히 시스템을 수용하고 움직여 나갈 것이다. 당원들을 믿는다.

II. 기초의원 선거구 '가', '나' 공천은 타당했나?

공천 잘못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초의원선거구 '가', '나' 공천이다. 2인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기초의원 의석수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다. 그리고 이는 전략의 부재를 증명하는 근거로도 제시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추천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19개(중구 4, 남구 6, 동구 3, 북구 3, 울주군 3) 중 3개 선거구(남구 '나'·'마', 동구 '가')다. 거론되는 3개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전체 선거에서 먼저 접근해보자.

1.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 1인 추천은 선거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정치지형상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초의원 1석이라도 더 건지자'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본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어려움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

원은 버리고, 기초라도 건지자는 패배주의적 사고인 것이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졌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치지형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은 인정한다. 그래도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면, 싸워보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공천도 책임진 단위다. ‘패배’를 선언하고 ‘패배할 장수’를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불리한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싸워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2인 공천은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적합하다.

2. 울산지역의 불리한 정치지형을 고려하여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울산의 정치지형이 불리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1:1구도가 형성될 경우 100을 기준으로 하면 40:60정도가 될 것이다. 4월 3~4일 경상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정당지지도 결과를 환산해보면 38:62 정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31.0%)+정의당(3.1%) : 국민의힘(44.7%)+국민의당(10.1%)]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 타정당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모두 ‘가’, ‘나’후보를 낼 경우 득표율은 국민의힘의 경우 ‘가’후보 35~40%, ‘나’후보 20~25%, 더불어민주당은 ‘가’후보 25~30%, ‘나’후보 10~15% 정도가 예상된다.(역대 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하여 추산함)

4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가’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32:28 정도로 황금분할을 이룰 때이다. 공관위는 이러한 가정을 미리 하고, 단수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4:6 정도의 상황이라면 후보자로 뛰겠다는 사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2인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3. 선거구별 정치지형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울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19개 중 2인 선거구는 14곳(중구 ‘가’‘나’‘라’, 남구 ‘가’‘나’‘다’‘라’ ‘마’‘바’, 동구 ‘가’‘나’‘다’, 북구 ‘가’, 울주군 ‘다’)이다.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 결과를 보면 중구 ‘가’‘나’‘다’와 북구 ‘가’선거구는 단수신청지역이었다. 복수신청이었으나 단수공천을 한 곳은 동구 ‘다’선거구가 유일하다. 나머지 9개 선거구 모두 복수신청지역이었으며, 공관위는 ‘가’, ‘나’후보를 공천했다. 공천 이후 남구 ‘다’‘바’선거구와 울주군 ‘다’선거구에서 1-나를 받은 후보들은 후보 등록 전 사퇴했다. 최종적으로 6곳(남구 ‘가’‘나’‘라’‘마’, 동구 ‘가’‘나’)이 2명의 후보를 낸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되었다. 선거구별 정치지형을 고려했어야 한다면 제기되는 2인 공천 문제는 결국 이 6곳에 대한 공천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 ‘가’, ‘나’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3인의 선거구(남구 ‘라’선거구 1-나 이재우, 동구 ‘나’선거구 1-나 문창경,

남구 ‘나’선거구 1-나 김우성)를 살펴보고, 공천 실패로 제기되는 선거구(남구 ‘나’와 ‘마’ 선거구, 동구 ‘가’ 선거구)를 살펴보자.

1) 6월 9일 기자회견자 3인 지역구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나섰던 이재우(남구 ‘라’선거구 1-나), 문창경(동구 ‘나’선거구 1-나), 김우성(남구 ‘나’선거구 1-나) 3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2인 공천은 전략의 부재’라며 문제를 제기하며 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상일보>가 (주)리얼미터에 의뢰한 울산광역시 정당지지도(2022년 4월 3일~4일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31.0%, 국민의힘44.7%, 국민의당10.1(국민의힘+국민의당=54.8%). 남구지역만 따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남구29.1%, 국민의힘 남구50.7%, 국민의당 남구9.5%(국민의힘 남구 + 국민의당 남구= 60.2%)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그 근거를 내세우며, “기울어진 선거전인데도 2인 선거구에 가,나를 공천해 패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가’‘나’공천은 시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급기야 6월 27일자로 sns에 7개 울산광역시의회 전·후반기 의장(황세영, 박병석) 등의 8인 평가단의 평가 자료에는 ‘기상천외한 전술’이라고 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3인의 선거구 결과를 보자. 이재우 후보가 나섰던 남구 ‘라’선거구에서는 1-가 박인서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창경 후보가 출마했던 동구 ‘나’선거구 역시 1-가로 출마한 윤혜빈 후보가 당선되었다.

결론적으로 ‘2인 선거구에 ‘가’‘나’를 공천해 패배를 자초했다’거나 ‘기상천외한 전술’이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2) 공천 실패로 거론되는 3개 선거구(남구 ‘나’‘마’, 동구 ‘가’)에 대하여

i) 동구 ‘가’ 선거구

선거구별 정치지형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일하게 공감되는 선거구다. 동구 ‘가’선거구에는 일찌감치 진보당에서 박문옥 후보 공천을 결정한 지역이었다. 박문옥 후보는 4·5대 구의원을 지낸 후보다. 4대 의원 당시 지역구가 ‘가’선거구다. 지역 인지도도 있고, 진보당 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종훈’ 후보와의 연계도 강하다(동구 ‘나’ 노동당 김덕규, 동구 ‘다’ 노동당 정영상 후보에 비하여). 충분히 위협적인 후보였다. 그리고 제명되었다가 대선 당시 ‘대통합 복당’으로 복당되었지만 컷오프 된 임정두 의원(‘가’지역구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예견되었다.

결국 동구 ‘가’선거구는 1-‘가’ 김인규 후보 5,851표, 1-‘나’ 유봉선 후보 3,139표로 진보당 박문옥 후보의 6,934표를 넘지 못하여 국민의힘과 진보당에 의석을 넘겨주고 말았다. 2인 선거구 ‘가’, ‘나’ 후보 공천에서 전략적 1인 공천을 적극 검토했어야 하는 지역이었다고 본다.

ii) 남구 ‘나’선거구

남구 ‘나’선거구는 현역의원이었던 최덕종 후보가 ‘1-가’를 그리고 지역 사무국장이었던 김우성 후보가 ‘1-나’를 받았다. 현역의원이 ‘가’를 받고 낙선한 유일한 곳이다. 남구 ‘나’선거구 지역은 옥동과 신정4동이다.

옥동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7회 지선(전체), 21대 총선 전체평균 득표율은 40.59%를 보여준 곳이다. 신정4동 평균득표율 40.38%다. 남구갑 지역 전체평균 39.97%보다 높게 나오는 지역이다. 대선을 앞두고 시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021. 12. 21. ~ 22.)에서도 옥동·신정4동의 정당지지도는 26.1%로 남구갑 평균 25.1%보다 높게 나왔다. (당시 여론조사 표본수는 19개 선거구별로 각 300명씩 2,700명이었다.) 당시 남구 ‘나’선거구의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51.7%였다. (정의당 5.6%, 국민의당 2.6%)

3월 9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남구갑은 목표득표율 38.09%에서 -0.98% 적은 37.11%를 득표했다. 남구 ‘나’선거구의 목표 득표율은 39.71%였으나 선거결과는 37.96%로 -1.75%나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1:1구도의 선거가 진행될 경우 40:60 비율은 유지되는 지역이었다. 앞에서 거론되었듯이 시당공관위는 40:60 구도에서 남구갑지역 ‘가’ ‘나’ ‘다’ 선거구에 모두 2인 공천을 결정했으며, ‘다’ 선거구에서 1-나를 받은 홍수임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서 ‘가’ ‘나’ 선거구가 2인 등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참고로 남구갑 지역에서 가장 정당지지도가 낮은 곳은 ‘가’선거구다. ‘가’선거구는 20대 총선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까지 평균 득표율이 34.60%이며, 올해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도 33.07%에 그친 열악한 지역이다. ‘가’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2-나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1-가 김예나 후보가 투표수의 22.00%로 당선되었다.)

결과적으로 남구갑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2:2 구도가 형성된 곳은 남구 ‘가’선거구 1곳이다.

선거인수	투표수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득표수/투표수)				무효표
38,973	21,360 (54.81%)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166 (10.14%)
		기초의원	최덕종	김우성	김부열	이지현	
			5,135 (24.04%)	1,933 (9.05%)	6,519 (30.52%)	5,607 (26.25%)	
			7,068 (33.09%)		12,126 (56.77%)		
		광역의원	손종학		이장걸		351 (1.64%)
			8,273 (38.73%)		12,735 (59.62%)		

※ 유효투표수별 득표율은 최덕종 26.75%, 김우성 10.07%, 김부열 33.96%, 이지현 29.21%입니다.

※ 유효투표수별 득표율은 손종학 39.38%, 이장걸 60.61%

남구‘가’선거구의 광역의원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의 합산 득표수 차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609표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에 비해 2배나 많은 1,205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무효표는 10.14%에 달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남구‘바’선거구의 경우도 무효표가 10%에 달하나 현상은 조금 다르다. 남구‘바’선거구는 별도로 살펴보자.)

각자의 해석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남구‘나’선거구에서 ‘왜 민주당 후보는 서로 싸우느냐?’던 당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선거 이후 1-가 후보는 SNS를 통해 1-나 후보가 전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1-나 후보는 자신이 현역들(광역의원후보와 기초의원후보 모두 현역이었음)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추해보건대 남구 ‘나’선거구는 표의 확장을 피하기 보다는 누가 더 집안표를 많이 확보하느냐는 집안 싸움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힘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은연중에 느낀 것을 아닐까? 그 모습이 광역의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초의원 투표에서는 대거 무효표로 이탈한 것은 아닐까?

(2위를 한 국민의힘 ‘1-나’ 이지현후보와 3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1-가’ 최덕종 후보의 득표수 차는 472표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손종학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 이탈된 표는 1,205표다. ‘1-가’ 최덕종 후보는 4명의 기초의원후보중에 유일한 현역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었던 이장걸의원은 광역의원으로 출마했다.)

iii) 남구 ‘마’선거구

남구‘마’선거구는 양당 ‘나’후보가 모두 현역의원이었다(더불어민주당 ‘1-나’ 류왕도, 국민의힘 ‘2-나’ 최신성). 사실상 양당 모두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던 지역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류왕도 후보는 컷오프되었다가 ‘1-나’로 공천받았던 조00후보가 사퇴하면서, 재신청하여 공천받은 지역이다.

컷오프된 후보를 재공천하여 4인 구도로 만든 공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1-가’ 이중동 후보는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만 하다. 더구나 현역의원이 ‘나’로 될 경우 파급력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나’ 후보 사퇴로 인해 재공천을 요구한 다른 선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마’ 선거구에서만 추가공천이 있었던 점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구 ‘마’ 선거구의 결과를 보면 이곳에서도 무효표가 10% 넘는다.

선거인수	투표수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득표수/투표수)				무효표
37,864	19,076 (50.38%)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031 (10.65%)
		기초의원	이중동	류왕도	김대영	최신성	
			3,760 (19.71%)	2,336 (12.25%)	7,000 (36.69%)	3,948 (20.70%)	
			6,096 (31.96%)		10,948(57.39%)		
		광역의원	김선미		김동철		347 (1.82%)
			6,933 (36.34%)		11,795 (61.84%)		

그런데 남구 ‘나’ 선거구와는 달리 광역의원 투표자의 이탈표가 양당 비슷하다(광역의원 득표수와 기초의원 합산 투표수의 차는 국민의 경우 847표, 더불어민주당 837표). 현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새로 공천받은 ‘가’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

안타까운 것은 2위 국민의힘 ‘2-나’ 최신성 후보와 3위 더불어민주당 ‘1-가’ 이중동 후보의 표차가 188표라는 점이다. 후보가 잘 안보인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었는데 좀 더 절실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후보 당사자가 열심히 안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선거기간 지역에서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아울러 과연 무리하게 재공천을 통한 ‘1-나’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는 문제의식은 남는다.

3) ‘가’, ‘나’ 공천으로 무효표가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초의원의 경우 복수공천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무효표가 많은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복수후보 공천으로 인한 혼란이 무효표와 정비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만약 복수공천이 절대적 기준이라면 복수공천이 이루어진 3~4인 선거구에 더 큰 혼란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지역	선거구	선출 의원수	정당 후보자 수			투표수	무효 투표수	무효 투표율
			더*민	국*힘	기타			
중구	나	2	1	2	1	19,497	883	4.53%
	다	3	2	2		35,328	3,437	9.73%
	라	2	1	2		16,891	620	3.67%
남구	가	2	2	1		29,298	574	1.96%
	나	2	2	2		21,360	2,166	10.14%
	다	2	1	2		23,567	794	3.37%
	라	2	2	1		23,011	755	3.28%
	마	2	2	2		19,076	2031	10.65%
동구	가	2	2	1	2	30,041	904	3.01%
	나	2	2	1	2	20,688	558	2.70%
	다	2	1	1	2	20,087	714	3.55%
북구	가	2	1	1	1	30,281	796	2.63%
	나	3	2	2	2	30,723	2,157	7.02%
	다	3	2	2	1	27,499	1,696	6.17%
울주군	가	4	3	3		35,572	3,042	8.55%
	나	3	2	3	1	32,562	1,950	5.99%
	다	2	1	2		31,233	969	3.10%

※ 중구 ‘가’선거구, 남구 ‘바’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지역임

‘가’‘나’ 또는 ‘가’‘나’‘다’ 후보의 복수공천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맞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통계적으로 기초의원 투표에서 무효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홍보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그 실효성 정도를 떠나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Ⅲ.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역할

선거 때마다 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당과 후보자 캠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후보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인물중심구도로 잡힐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더 크게 도드라진다. 반면 당에서는 정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잡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야 지방선거와 같은 패키지 선거에서 단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이슈에서도 서로 의견차이가 난다. 시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중심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이 캠프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의 경우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함을 유지하며 치러내기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

이 존재하게 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정도가 덜할 뿐 어려움은 비슷하다.)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에 요구하는 내용은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제8대 지선 후 집담회에서 나온 당에 대한 요구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약들을 미리 준비하여 기초의원까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선출직 의원들의 경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에서 인력지원(자원봉사자)을 해주면 좋겠다.

셋째, 후보는 선거운동하기에 바쁘다. 그러므로 상대후보에 대해 공격할 사안이 생기면 당이 발 빠르게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

넷째, 후보들은 각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힘들다.

당이 나서서 전체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끌고 가 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캠프는 캠프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힘들다. 당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모두 의미있고 검토해볼만한 사안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막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의 긍정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부분적 이나마 현실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공약정리 및 공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사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지역상황을 살피며 준비하는가의 문제다.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선거일 6개월 전에 관련팀이 구성되고 활동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한다. 시당 정책실과 지역위원회별 추천 2명, 기타(부문 또는 계층) 등으로 13~15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주1회 모임을 정례화 하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을 검토하고 정책이나 공약으로 반영 가능할지 검토하면서 분야별로 분류하고 사례도 연구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볼 수 있다.

예비후보기간에 입후보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설을 하고, 후보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지향과 활동영역에 맞춰 제안된 공약을 선별하여 자신의 공약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 이외에 후보자 개인별 공약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 후보자 개인 공약은 후보자들이 준비할 영역이다.

2. 인력지원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당이라고 해서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니다. 오히려 선거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자 개인의 인력풀이 더 풍부할 수 있다. 시당에서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크

게 선거사무, 회계, 홍보, 연설원 구분할 수 있겠다. 교육은 각 분야별로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잡는게 실용적이다. 교육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배치하던지, 시당 사무처에서 주담당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 들어간다면, 예비후보등록 후 활동기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교육대상자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출마예정자와 캠프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 현실을 보면 출마예정자들이 캠프구성에 대한 사전 고민이 적다.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선출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사람도 미리 조직해 두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절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는 불가능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구전홍보팀을 담당해 줄 사람도 중요하지만 캠프를 운영할 사람도 중요하다. 공직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정치철학과 지향점을 세워나감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고민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도 선거일 1년 전에는 2~3인이라도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율이 50%로 낮게 나온 상태에서 2위로 당선되려면 5000~8000표는 득표해야 한다. 여기서 당이 70% 역할을 해준다면, 본인의 역량으로 2000~3000표는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 넘을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운에 맡길 수만은 없지 않은가?

공직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사전준비와 시당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교육은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상대후보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이 부분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상대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후보가 직접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언론 노출, 당사자주의)’는 의견과 ‘후보는 일상적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상대후보 공격은 시당에서 해 주는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과제로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체계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울산의 경우 시당 대변인들이 모두 지선에 후보로 출마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보완할 것을 권하고 싶다.

4. 단일대오를 위한 이슈 발굴과 선거주도

한마디로 쉽지 않은 과제다. 다만,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로 명확한 전선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선거는 캠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사실상 선거를 주도하는 힘은 캠프에 있다. 대통령선거도 당이 주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선거에 임하는 출마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력들이 캠프에 있고, 선거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당과 캠프의 시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 해결은 당과 캠프의 결합력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시당과 광역단체장 캠프 결합정도가 대오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광역단체의 크기 특성에 기인함)이다. 준비단계부터 결합되어 충분한 논의가 오고간다면 그 어떤 곳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후보자 공천 확정 전까지 공식적인 라인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경선이 진행될 경우에는 더 예민해질 수 있다. 결국 시당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후보예정자들과 개별 또는 집단 만남을 통해 공동의 이해가 반영되는 지역이슈를 발굴하고 공동대응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활동을 통한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차기 시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소통을 기대한다.

5.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당연한 요구임에도 어려운 과제임을 고백한다. 시당의 인적자원 한계 때문이다. 시당인적자원이라고 하면, 시당 사무처와 각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그 외 특별위원회 등이다. 그렇지만 시당 사무처 당직자를 빼고 나면 모두가 일상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당 활동은 생활의 일부분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당 활동은 소수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요구는 많다. 소수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분담의 문제다.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 등 당의 주요인사들이 당에 대한 책무를 조금씩 분담해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적절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기간에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캠프에 결합되지 않은 인사가 거의 없다. 별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앞에서 거론되었던 시당과 캠프와의 결합 속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켜 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위에 거론된 대안이나 한계들은 개인적 의견이다. 문제해결이 가능한 충분히 능력있는 분들이 당에 합류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실현시켜 나가주길 기대해본다.

IV. 원팀은 가능했는가?

원팀은 가능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중앙은 대선 패배 후 송영길 대표가 물러난 뒤 비대위가 구성되었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서는 중앙당에 대한 평가는 덮고 울산 상황을 살펴보자.

민선7기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평가는 30%를 오르내렸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긍정평가가 광역단체장을 앞섰다. 자연스레 기초단체장들은 광역단체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광역의원들 역시 20% 후반대에 머무른 광역단체장에 대한 긍정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하는 모습이였다. 광역단체장과 한팀이라는 이미지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움직임이였다.

광역단체장 캠프 역시 기초단체장들과의 원팀전략보다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는 모습이였다. 캠프 주도의 교육이나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당과의 사전조율이나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기간에도 유지되었다. 합동유세 등을 통해 일시적인 ‘원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광역단체장 선거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끌어주지 못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계
광역단체장	36,596	48,425	32,032	41,248	37,129	195,430
기초단체장	38,822	44,914	36,699	34,843 (43,001)	40,081	195,359 (203,517)
※ 동구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득표수를 반영함. (민주당 후보 사퇴지역) ※ 북구는 3자구도로 진행됨. ()안은 민주당+정의당 득표수.						

선거운동을 통한 ‘원팀’ 분위기도 주도하지 못했다. 민주당 전체 후보자들이 ‘원팀’이 되려면 하나의 이슈로 정책 또는 구도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은 ‘일 잘하는 후보, 격이 다른 후보’였다. 그리고 선거중반 이후에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교평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도 사용되었다. 광역단체 선거를 인물 대결로 끌고 가면서 기초단체장 후보나 광역·기초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차단되어 버렸다.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간의 원팀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출·퇴근 인사와 거점유세를 함께 하는 정도였다. 메시지의 통일성, 선거운동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았다. 동구의 경우는 중간에 기초단체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의원 후보들은 각자도생하여야 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의 지역위원회가 이들을 원팀으로 묶어내기는 힘들었다. 북구는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에 뛰어들면서 결합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기초단체장간의 단일화만 거론될 뿐, 광역·기초의원까지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결국 북구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선거일을 맞이했다. 그 외 지역 역시 원팀분위기는 아니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외연확장에 필요하다며 민주당색을 희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정치적 지형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원팀은 이상이다. 지형이 불리하면 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원팀이면 극복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만의 생존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모습이 모여준 전형이다. 이는 환경과 주체 모두의 문제라고 본다. 아마도 이후에도 정치지형이 불리함 속에서 선거에 임하게 된다면 질 높은 원팀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낮은 수준의 원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자. 그것은 정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시당에서 주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시당이 이를 주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감내해야 한다. 후보 캠프와의 결합력이 약한 상태에서 시당의 영향력이 약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노력했어야 한다. 그것이 시당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V. 민주·진보 대연합 구도는 울산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수인가?

21일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국힘에 맞선 범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과 캠프 내 분위기 속에서 전세전환을 위해 송철호 시장후보는 5월 23일 “과거 반노동·반인권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김두겸 후보가 시장이 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 시민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범 민주노동지보개혁 진영의 위기”라며 범민주진보개혁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울산시민공동행동, 진보연대, YMCAS, 노무현 재단, 울산민주주의 연대 등은 연석회의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사라졌던 적폐세력의 재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며 김두겸 후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캠프의 전략은 네거티브 선거로 전환된다.

과연 시장캠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상한 민주·진보 대연합 구도는 승리할 수 있는 상수였을까? 안타깝게도 나는 ‘아니다’고 단정한다.

득표결과를 보자. 송철호 시장이 받은 득표수는 195,430였다. 이번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민주·진보연합이라 할 수 있는 3당의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166,997, 정의당 19,628, 진보당 14,367이다. 3당 합계 득표수는 200,992표로 송철호시장 후보의 득표수보다 5,562표 앞선다. 동구에서 김종훈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탈표 비중은 더 크다. 송철호 시장후보의 득표수는 32,032표에 그친데 반해 김종훈 후보의 득표수는 36,699표로 4,667표 더 많았다.

결국 더 이상 울산지역에서 민주·진보 대연합을 통한 선거승리 공식은 설 자리가 없음이 확인된 선거다.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당 합계 득표수의 득표율은 40.86%였다(광역비례 투표율은 52.25%였다). 전체 유권자의 21.35%다.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0.79%였다. 297,134표의 득표수는 2018년 송철호 시장이 얻은 317,341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정치지형상 선전한 득표였다.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라 할 수 있는 후보들의 울산 전체 득표수는 321,289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97,134, 정의당 심상정 21,292, 기본소득당 오준호 375, 노동당 이백윤 308, 진보당 김재연 2,180). 투표율 78.05%에서 얻은 합산 득표율은 43.68%다. 촛불혁명 이후 치뤄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받은 득표율은 38.14%(득표수 282,794)였다.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62,187표), 민중연합당 김선동 641표를 합하여도 46.39%(합산 득표수 345,622)에 머무른다.

이제 민주·진보 대연합이란 허울을 벗어던져야 한다. 지난 6월 22일 <2022 경향포럼>에서 토니 블레어가 외친 “이념에서 벗어나라. 좌냐 우냐, 시장이나 국가나 하는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리에 기반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실리에 기반한 실력을 갖추고, 실리를 구하는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념적 성향에서 양갈래로 뚜렷이 나뉜 진영싸움에서 선거의 승리는 실리투표를 선택하는 약 10%의 유권자(투표율에 따라 15~20%정도를 좌우함)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 진보3당과 민주노총 등은 벌써부터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후보를 준비하겠다고 움직이는 분위기다. 동구청장 선거의 승리를 진보진영의 자력에 의한 승리로 바라보며 울산 전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나설 듯 하다. 그리고 또다시 2023년 말부터는 범민주진보 대연합이 지역 586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번 시장캠프와 그 주변에서 ‘범민주·진보대연합’을 주장했던 분들이 주축이 될 것 같다. 늘 그래왔듯이.....

6/1 울산 지방선거 집단 평가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평가는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SNS에서 간간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집단지성을 통해 나름의 완결성을 갖춘 평가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단위의 공식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평가의 맥락을 사전에 공유하여 뜻있는 당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기 완결성을 갖춘 평가를 위해서 초안의 형식으로 이 평가서를 긴급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집단 평가서는 아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초기 모임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긴급히 이 평가서의 내용과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연명을 통해 집단지성으로의 평가의 완결성을 꾀하고, 향후 울산시당의 방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방향은 큰 틀에서 핵심적으로는, 이미 완연하게 당원들 주변의 여론으로 형성된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사퇴’가 될 것입니다. 본 평가서 초안의 기저에 흐르는 논리와 근거들이 그와 다름없기에 본 초기 모임 구성원은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아 이 평가서를 공유합니다.

* 이하 내용은, 1. 평가서 요약, 2. 연명부, 3. 평가서 본문으로 구성합니다.

2022. 6. 26.

초기 평가 모임 & 제안자

김 용 주(송철호선대본총괄본부장)
 윤 인 섭(울산노무현재단고문)
 황 세 영(울산시의회전반기의장)
 박 병 석(울산시의회후반기의장)
 서 성 호(민주당울주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김 형 근(전,울산시정책특보)
 신 성 봉(울산중구의회전반기의장)
 권 진 회(민주당전국대의원)

I. 평가서 요약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는 대선 승패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8차 지방선거 패배는 승패의 단순 결과보다는 성적표의 내용에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선의 영향이라는 외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젖잘싸’ 식의 자기 위안을 넘는 전략(대선패배 영향차단, 대선결합평가, 내부조직력 점검, 전략적 이슈확립등)준비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모두 현직 프리미엄으로 거의 경선 없는 단수 공천을 하였고, 그 결과는 시의원 비례 1명과 구의원 17명만 남은 참담한 성적표이고, 국민의힘과의 득표 차이(대선 13.6%, 시장 19.57%, 기초단체장 17.14%, 시의원 21.11%, 광역비례 23.34%)이다.

대선보다 25% 차이가 나는 지선의 투표율(특히 대선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의 복구가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78.7% Vs 50.3%)과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와의 득표 차이(특히 노동이슈 강한 복구와 동구에서의 두드러진 차이) 등은 선거판을 요동치게 하는 이슈와 프레임전략의 부재, 반 국민의힘 민주개혁 지지층의 저조한 결집의 결과였고, 그를 낳은 것은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부터 노정된 조직, 선전, 전술, 정세분석 등 총체적인 선거전략의 부재였다.

준비 시기에, 시당은 정해진 단위구성(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위원회 등)을 위한 행보를 할 뿐이었고, 4/7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패배에 따른 패인분석을 시작으로, 민선 7기의 위상과 의의 공유, 정세분석, 각 정치세력과의 관계설정, 조직점검 및 가동 준비, 이슈발굴, 프레임짜기, 선전 조직화 준비, 현실적 목표 잡기 등의 지방선거 전략수립에 관한 일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 결국, 선거의 3요소라는 인물, 구도, 바람은 물론이고, 진보 3당과의 관계 등 정치 노선 측면에서도 오락가락을 하거나 무 입장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일상시기 당 활동의 내용과 다양한 수준의 조직화 경험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후보자를 정하기까지, 공천은 선거의 핵심요소이다. 인물, 구도, 바람을 모두 반영하는 핵심임에도 대부분 현직 우선의 경선 없는 공천을 감행하였는데, 왜 그런 것인지, 어떤 전략과 전술의 반영인지는 거의 공개, 공유되지 않고, 일관되게 폐쇄적인 과정이었다. 막후에서의 후보조정과 공천심사에서의 평가 객관성 확보 부족, 1-가와 1-나로 이루어진 기상천외한 공천전술 등은 갑질 수준의 행위였으며, 결국 공정경선을 통한 원팀으로의 상승 분위기 조성은 말뿐인 성찬이었다.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시적인 득표전략이 존재하지 않았다. 출정식에서부터 시당위원장 불참석과 당 골간 조직의 자기표현 부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시당과 캠프 간의 협업과 분업, 총괄과 조정, 집중과 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유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이어졌다.

우리는 국민의힘에만 진 것이 아니다. 그에 먼저 우리에게 졌다!

II. 연명부(가나다 순)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1	강성운	당원	박기숙	당원	이상윤	당원
2	강영태	당원	박부경	당원	이상호	당원
3	강정덕	당원	박상준	시민	이상훈	당원
4	권기영	당원	박세진	당원	이시우	당원
5	기문걸	당원	박소정	당원	이유동	당원
6	김경미	당원	박용규	당원	이은정	당원
7	김경환	당원	박지훈	시민	이재우	당원
8	김미숙	당원	박창홍	당원	이정옥	당원
9	김미순	당원	백미라	당원	이철호	시민
10	김민서	당원	서명자	당원	이태호	당원
11	김민영	당원	서상길	당원	임우철	당원
12	김설희	당원	서재민	당원	임정영	당원
13	김완규	당원	석원진	당원	장운룡	당원
14	김용운	당원	성예란	당원	전영수	당원
15	김우성	당원	성인수	당원	전영희	당원
16	김정림	당원	성창기	시민	정영득	당원
17	김정호	당원	성하정	당원	정위식	당원
18	김종복	당원	성화섭	당원	정호익	당원
19	김지숙	당원	손승욱	당원	지연근	당원
20	김지숙	당원	손종학	당원	차미화	당원
21	김창민	당원	손현지	당원	최명자	당원
22	김창용	당원	신동록	시민	최원식	당원
23	김현숙	당원	안도영	당원	최종환	당원
24	남상호	당원	양동석	시민	하홍권	당원
25	노윤수	당원	여진옥	당원	한기양	시민
26	딴은주	당원	유종선	시민	한복판	당원
27	맹명섭	당원	이경원	당원	한영섭	당원
28	문승용	당원	이경희	당원	허준원	당원
29	문정숙	당원	이노형	당원	현맹선	당원
30	문창경	당원	이미영	당원	현용	당원

Ⅲ. 평가서 원문

1. 지선의 외적 조건

1) 대선 직후인 시기적 조건

① 대선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음. 대선 시기 내부결집과 조직력, 이슈의 공유와 선점 등의 관점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지선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칠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음.

② 하지만 사전에 지선을 염두에 두고, 이슈와 조직의 측면에서 대선과 결합할지점과 수위를 결정하는 단위나, 혹은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임. 이는 이후 이어지는 지선에서, 인물론을 제외하고 전략적인 이슈를 울산시당 차원의 공통적이면서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초래함.

* 작년 10월경, 시당에서, 울산의 ‘대선 공약 10대 과제’를 정책 엑스포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은 있었음. 울산시의 22개 세부과제를 참조하여 당원들이 직접 순위를 정하는 식이었음. 하지만 전략적 이슈발굴과 이슈선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나열 식, 인기투표 식 진행 경향이 컸기에, 이를 대선 이후 지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③ 대선 결과가 주는 영향도 있음. 대선 패배에 따른 내부 극복의 과정이 당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면서, 당 주류 중심의 ‘졌잘싸’ 식의 인식이 크게 자리 잡음. 일례로 영남 기초지자체 중 윤을 이긴 곳이 북구가 유일하다는 식으로 자기위안을 삼는 분위기가 컸음. 패배했기에 지선에서 이의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할지 보다는 아깝게 ‘석패했다’에서 그침.

※ 대선 결과(북구&동구 평가)

- 북구 선거인 수 대폭 증가(17만 5천명)속 전국평균에 근접(47.2%, 64,692명)
윤석열 투표자 수(47.13%, 64,597명)보다 많음
- 동구는 부진(45.68%, 44,506명), 투표권자 수도 19대선 대비 10,780명 적은 127천여 명, 아프간 기여민들 이주문제에 대한 악성 선동이 주효한 듯.

※ 19대 대선에는 전국평균 득표보다 높음(동구-41.42%, 44,931명, 북구-42.53%, 52,058명, 전국평균 문재인 득표 41.08%)
18대는 두 곳 전국평균 미달, 투표권자 수도 비슷(각 13만여 명 투표권자, 10만여 명 투표, 47,000명(동구)과 49,000명(북구) 득표)

④ 아래의 표를 보면, 전국적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전국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하면, 윤석열 득표가 높은 곳이 지선의 투표율이 높고, 이재명 득표가 높은 곳은 투표율이 낮는데(폴리뉴스, 정찬기자, ‘[한국리서치]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 대선 이재명 득표 높았던 곳서 두드러져’), 울산은 울산만의 독특성의 영향이 컸음. 표에서, 윤석열이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남구는 지선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두 번째로 득표율이 낮았던 동구는 오히려 지선 투표율이 가장 높

있음. 이재명 관점에서 보면,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북구와 동구가 지선 투표율에서는 최저와 최고를 보임으로써 대선의 영향력이 울산 지선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차지하지는 못함을 보여줌. 오히려, 대선에서의 이재명 득표율보다 지선에서 송철호 득표율이 각 지자체별로 경향적으로 낮은 점이 두드러짐.

〈 지자체별 지선과 대선 득표율과 투표율 비교 〉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지선 (52.26%)	송철호	37.6	36.3	45.9	47.2	37.9
	김두겸	62.4	63.7	54.1	52.8	62.1
	투표율	54.3	50.3	55.6	50.3	52.6
대선 (78.06%)	이재명	38.1	37.5	45.7	47.2	38.8
	윤석열	57.4	58.4	48.3	47.1	56.7
	투표율	78.6	78.1	77.2	78.7	77.3

⑤ 대선에 비해 약 25%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대선 결과의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대선에 비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 이슈 제기의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 지지층에서의 위기의식 비확산으로 인한 결집수준의 저조함*에 있음.

* 선거운동 과정 중, 가장 규모 있게 유권자접촉을 한 단위의 평가를 보면, 권리당원이라는 분들과의 직접 전화접촉에서 1/5 정도만이 적극성을 보이고, 심지어 1/5은 악담을 하는 등 도저히 당원이라는 울타리에 있다고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음.

2) 윤정부 취임

① 취임 이후의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 낮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 보다는 정권 초기의 기대에 따른 안정희망 분위기가 저변에 깔림.

② 청와대 개방과 더불어 용산집무실 마련의 문제는 있었지만, 취임 후의 인사와 한-미 등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감으로써 취임에 따른 리스크보다는 새 정부 초기의 기대 심리가 전국적으로 반영되었을 텐데, 울산에서는 취임초기의 컨벤션효과가 표의 결집으로 나타나는 식의 두드러짐은 없었다고 해석 가능함. (12년 대선 시 박근혜 결집 이후 2년 뒤 선거인 6차 지선 시 김기현 득표인 30만 6천표보다 적음 - 56% 투표율)

2. 지선의 내적 조건

1) 사전 준비(시당을 중심으로)

① 대선 이후 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거치고 3개월 후의 지선을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였는지가 평가되어야 하지만 대선 평가는 중앙에 넘겨지고 중앙은 목전의 지선을 이유로 미루는 흐름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었음. 다만 영남권 전체에서 북구가 근소하지

만 이겼다는 식의 무용담(?) 가까운 애기와 40%를 넘기면서 영남권 전체에서의 상대적인 다 득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집단적인 평가공유는 없었음.

② 2018년 지선 이후 울산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꾼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평가는 뜻하지 않게 벌어진 2021년 4월 7일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였음. 결과는 민주당과 진보당을 합쳐도 안 되는 대패(국민의힘 63.73%(69,689표), 민주당 21.15%(24,223표), 진보당 14.11%(15,431표)로 귀결됨.

③ 이전의 선거와 다른 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남구에는 시·구의원이 다수가 있으면서 당선되고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에 가까운 기간이 있었다는 조건이 있음. 이전에는 대부분 ‘맨땅에 헤딩’ 하는 식의 무모함에 가까운 선거를 했던 조건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었음(물론 전임 청장이 갖는 리스크는 존재함).

④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시당과 후보자와 남구 시·구의원 간의 공동선거운동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별도의 평가가 없기에 면밀히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당시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공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함.

⑤ 재보궐 선거 자체의 성격은 18년 지선 승리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대중적 평가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했음. 그리고 전임 청장의 리스크로 불리하게 출발하지만 그 리스크를 시·구의원 장악이라는 조직력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데다가, 진보당과의 단일화 등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당사에서 선거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음. 졌는데, 도대체 무엇에 졌는지, 극복의 맹아들은 발견되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 버림.

cf) 사무처 당직자 중에서, ‘4/7 재보선의 패배는 분노가 아닌 실망의 표현’이라는 분석 문건을 생산했으나 이후 처리와 반영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음.

⑥ 재보궐 선거에서의 무 전략이 초래한 결과가 이후의 결과들을 잉태한 것일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음.

⑦ 8차 지선에서 현역들이 대부분 공천이 되었는데, 이 역시 현역의 신분에서 공식적인 지선 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을 전제한다면 시당 차원에서의 준비, 특히 전략적 준비가 전체 선거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핵심 지점임. 하지만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공유된 적도 없었고, 선거의 목표 역시도 현실적인 최종 목표나 울산시당의 역사 속에서 8차 지선을 통한 발전적 모습을 목표로 잡는 등등이 없었음.

* 시당에서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모습과 선거를 준비하려는 모습(전략 수립, 조직 가동 준비 등)과의 차별성이 나타났는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함.

〈 년 초부터 대선 직후까지 시당 홈페이지 공고 내용 〉

	실버위원장 모집공고	11차 운영위	지선 출마예정자 간담회	이재명후보 울산유세	12차 운영위	13차 운영위
일시	22. 1. 3	22. 1. 13	22. 1. 17	22. 2. 25	22. 3. 22	22. 4. 4
내용	결석인 자리 정상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 외	시당위원장과의 간담회 -현직제외	2.27, 롯데 이재명후보 울산유세 단순공고	공관위 및 재심위 구성 의결 외	비례대표 추천관리위 구성 의결 외

* 이후는 전부 후보자 서류 제출 등 실무적 내용임, 전략, 전술, 정세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공지임

2) 사전 준비와 준비내용에 대한 결론적 평가(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① 현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와는 다른 단위에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리고 준비라는 것도 주된 내용은 선거전략 수립과 조직 가동 준비 조치일 것임.

② 선거전략 준비에서, 시당과의 교감이나 소통은 거의 없었음. 자체 해결 기조로, 기존활동의 연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적 관점을 갖춘 개인들의 집합적 활동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만의 울타리가 존재하여 후보와 관계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다양한 관계에서 나오는 밑으로부터의 다양한 발상들의 상향식 수립과는 상관없이 진행됨. 다양한 발상의 수집과 수립이 곧바로 집단적 전략수립의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 향후 선거운동의 골간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될 터였지만 그 부분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비어 있게 됨.

③ 따라서 전략이 갖는 특성인 ‘치밀함’과 ‘체계화’ 보다는 전략수립 주체 형성에서 개인 간 만남의 우연성, 과거 활동에 기반한 관계의 연장성,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배제성 등이 맞물려, 선거 시기 유력하게 시민들에게 공유, 확산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프레임’ 생산에는 실패한 결과를 가져옴. 이는 막바지에 ‘격이 다르다’로 표현되는 인물 프레임이 계획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체적인 전략적 구도 속에서의 비중에서도 과도한 위상부여(막바지 총 집중점이 되어 버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④ 특히, 전략의 기본인 각 정치 주체들과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 어떠한 원칙도 공개 되거나 공유된 적이 없었음. 시당에 요청한 적도 없고, 시당에서도 역시 어떠한 방침이나 원칙이 나오지도 않았음. 결과적으로 이는 동구나 북구에서의 진보3당과의 관계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이는 곧바로 표로 이어져, 동구와 북구 모두에서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였고(동구 45.9% Vs 54.1%, 북구 47.2% Vs 52.8%), 시장 후보의 득표 가능성이 높은 북구는 투표율 자체를 최저(50%)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음.

⑤ 조직가동 준비에서,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많기에 드러내서 뭔가를 하기에는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임. 지난 선거에 관계했던 조직들에 대한 점검과 새롭게 결합해

야 할 조직들과의 접촉면의 확보가 중요한 내용일 것임.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당의 조직적 자산들에 대한 결함과 활용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평가해본다면, 노동 분야를 제외하고는 후보의 사적 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관계에서의 조직적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기에 준비단계에서의 취약함이 매우 심하게 드러나는 지점인데, ‘시당 조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새로이 써야 할 부분임.

2) 전략이 있었는가?(울산시당 차원에서)

① 과연 민주당의 전략은 있었는가? 를 결론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음. 흔히 선거를 구도, 바람, 인물의 측면에서 논하는 데, 전국적으로도 어떤 구도나 어떤 바람, 어떤 인물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가 분명치 않았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였음.

②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대선 패배 이후라는 시간적 특수성의 측면임. 즉, 패배감의 극복을 어디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시작할 것인지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용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데, ‘젖잘싸’ 이외에는 관성적이고 관료적인 지선 준비가 모든 것이었음.

③ 정치노선 측면의 전략은 전무 했음. 울산에서 활동 중인 각 정치 주체들과의 관계 자체가 시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당에서는 울산 정치라는 전체집합의 원소로도 취급하지 않았었고, 선거국면이라고 달라질 것도 없었음.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민주연립 정부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시당에서는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음. 결국 이 부분은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시장 후보에 대해 ‘공동민주정부구성’ 이란 틀로 제안되고 수용되었지만, 이는 시장 후보에 국한한 것일 뿐, 시당 차원의 전략으로도 전환되지 않았음.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다른 정치 주체들은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그냥 무시하고 생까는(?) 존재로 취급한 것이 대단한 오류였음은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내 줌.

④ 구도의 측면에서도 역시 전략은 전무 했음. 대선 패배 이후이기에 전반적으로 누가 나와도 어렵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도, 그런 판단에 따르는 선거 구도짜기가 전무 했음. 사실 이 부분은 울산의 8차 지선의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지고 상황과 조건이 부여하는 임무를 반영하여 선거 구도가 짜져야 하는 것인데, 목표가 정해지고 공유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8차 지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서 구도도 선명하지 못했음. 단지 명분이 필요한 곳에서 나열식으로 여성, 청년을 소환하였고, 왜 그 선거구에 여성이나 청년이 필요한지, 여성이나 청년이 어떤 이슈로 어떤 흐름을 만들 지가 전체 선거 구도 속에서 해명되지 못하였기에 전부 개별화되어 버리고 그냥 소모되어 버림.

⑤ 구도의 연장에서, 인물 위주의 구도로 갈 것인지, 바람과 이슈 위주의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물과 이슈를 각각 얼마의 비율로 배합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았음. 소위 프레임 짜기에 완전한 실패를 자초함, 특히 국민의 힘에서 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여론을 집중시키고, 조

직가동에서 예열 단계를 지나 본 게임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손 놓고 있었고, 박맹우가 계속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소위 ‘3자 구도’에 대한 순진한 바람만 난무하였을 뿐임, 가령 2자 구도가 되어 누가 더 유리할지가 판단된다면 국힘의 후보 경선과정에서 후보 개별에 대한 인물평가가 이미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음.

⑥ 하지만 **네거티브**는 양념이지 주재료가 아니라는 관점이 필요함. 네거티브는 ‘상대방은 악이다’는 논리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의 핵심이슈로 하는 것은 과도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임. 김두겸이 후보로 결정된 날은 4월 22일이었고 그에 대한 인물평은 이미 드러난 게 많았었기에, 잊혀진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일찍부터 대중화시켰다면 본 선거운동에서의 인물 프레임은 확산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임. 실제로는 공식선거운동의 후반전에 들어서야 ‘격이 다르다’로 공세를 시작하였고 이는 막판에 몰리는 쪽의 마지막 발악처럼 시간에 쫓기듯 이루어졌을 따름임.

⑦ **이슈나 바람의 측면**에서, 초기부터 확정한 전략은 없었음. 단지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 많고 한 시장’이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을 뿐임. 하지만 이는 이슈나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물 측면에서의 차별성의 강조였기에, 인물 프레임의 한 부분이었음. 오히려 바람은 언론에서 먼저 제기해주었는데, mbc를 시작으로 경상일보, ubc가 모두 여론조사를 하였는바, 여론조사에서 부유식해상풍력을 독립문항으로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가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조건이었음. 그럼에도 이를 이슈나 바람으로 전환하지 못했음. 언론에서 프레임을 짠 것이 민주당의 ‘부유식해상풍력’ Vs 국민의 힘의 ‘그린벨트 해제’ 혹은 ‘신불산케이블카’였음. 프레임이 개발이나 보존이나는 식의 답이 뻔한 전형적인 이분법적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둘러싸고 어떤 개발이나, 미래나 과거 답습이나, 혹은 전망이 무엇이나 등으로 프레임이 확장될 수 있었지만, 막판에 무상전기가 잠깐 반짝했을 뿐, 전혀 바람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 정확히 평가하자면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는 흐름이 있었을 지경이었음. 단, 시당은 시당 명의의 현수막을 5/19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길거리에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무상전기 시대를 이루겠다’는 내용이었음. 하지만 이것이 바람이나 이슈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공식선거운동 직전이라 바로 다음 날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도배되는 속에서 눈에 띄이지도 않지만, 별도의 문자전송 등 당이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한 공지나 홍보 등으로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기에 주도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그 무엇은 아니었음.

3) 조직적 준비(울산시당 중심)

① 선거를 보통 기세 싸움이라고 함. 기세라는 말로 대표되는 내용에는 조직의 수준과 조직의 동력, 조직원의 열망, 시대적 소명 인식 정도 등등이 있을것임. 이 부분에서는 시당 조직의 일상적 체계에서 선거 체계로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회의체계와 의사결정체계, 정보 소통체계, 조직관리체계, 각종 지원체계(전략, 정책, 홍보, 선전 등)는 어떠했는지 등이 평가가 되어야 하나 알려진 것도 없거니와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도 없기에 이 평가에서는 생략할 수 밖에 없음. (이 평가 이후 시당 내부에서 별도의 평가가 나오길 기대함)

② **시당 조직 내부의 동력은 무엇이었나?** 선거투쟁이었나? 득표 활동이었나? 선거투쟁이라면 선거라는 특수 시기의 특수 목적을 위한 전선이 슬로건이나 전략으로서 명확해야 하고 주체의 일사불란한 대오(시장, 구청장·군수, 광역·기초의회 통합 대오)와 의지가 확고해야 함. 득표 활동이라면 인물 알리기 발품 팔기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책임자임을 끊임없이 알려야 하고 무엇보다 당선의 의지가 확고해야 함. 투쟁인지 활동인지는 8차 지선의 의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함,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킬 의지와 목적이 뚜렷해지기 때문임. 23년간의 지자체제도 이후 최초로 모든 단위의 집행부와 모든 단위의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민선 7기 지방 권력의 성격이 부여받는 의의가 상당함. 온전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도시, 생산도시라는 특성이 낳은 열악한 환경 극복과 동시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소명이 있고, 광역도시에 걸맞게 의료, 문화, 예술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 확보 등등이 미래비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주류역할 해체를 향한 노정을 출발하는 의의가 있음(민선 7기의 역사적 임무! 허나 민선 7기 초기에 이 역사적 위상과 임무에 대한 해석과 공유노력은 전무했음). 8차 지선은 당연히 이의 중단없는 진행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음. 단순히 지배층 내부의 세력 교체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23년을 지배해 왔던 텃밭이었기에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열망이나 의지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고, 이는 선거국면에서의 치열한 투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었는데, 시당의 준비는 그러한 성격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음.

③ ‘북구의회 제외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완전 패배’ (사실 북구의회도 진보당 1석으로 인한 캐스팅보트이기에 민주당 관점에서는 패배)라는 결과는 조직의 내부 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남. 단순한 득표 활동 그 이상은 아니었음. 이는 총체적인 전략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로도 찾을 수 없음.

④ 최초로 시와 5개 구군 집행부와 의회를 장악했다는 완벽한 조건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현직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패배 직후라는 외적요인 말고 내적 요인으로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일까? 단체장과 시의원 중 단 한 명도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의 패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대강은 전략수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선거운동을 곧 선거투쟁 대오로 편제하는 수준으로까지 조직적 준비를 하지 못했음에 있음.

3. 과정 평가

1) 공식선거운동 이전 기간(정세분석, 목표정립 등)

① 모든 활동이 지선 준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는가? 관성적, 혹은 관료적 진행이 아니었나? 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함. 선거를 위한 특별 조직이나 특수 임무, 혹은 특별 기간 등을 정해서 뭔가를 목표로 했던 과정은 없었음. 사실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과 자

원 상호 간의 입체적 연결, 연결을 위한 매개고리들의 조직화와 그를 통한 상승효과 전략을 짚어야 하는 기간이었음.

② 선거를 둘러싼 정세분석을 하기는 하였나? 어떤 단위가 어떤 과정으로 하였나? 결과물에 대한 공유는 되었는가? 가 평가되어야 함. 하지만 대선 직후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시간적 급박함에 밀려 제대로 된 정세분석은 엄두도 안 났을 것임.

③ 8차 지선의 목표를 수립하였나? 그 수립된 목표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가 평가되어야 함. 하지만 목표에 대한 얘기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고, 대선을 전후하여 대선에서 패배하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예상만이 난무하였음.

④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모두 준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8차 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2년과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음. 그것이 없는 단순한 반성이나 낙관은 2년 후 총선과 4년 후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예고할 따름이며, 이는 민주당에게 그동안 약 10여 년 쌓아 온 성과를 허물고 지나간 정체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강제할 것임,

2) 공천과정

□ 폐쇄적인 과정

① 공정경선보다는 컷오프가 훨씬 더 많은 공천이었음. 왜 컷오프가 된 것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단위도 없음. 선거전략 상의 관점에서의 컷오프라면 수궁이 갈 만도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확인이 전혀 안 될 정도로 폐쇄적이었음.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들의 경우, 재심청구까지 했고, 재심청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서류 열람이 재심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심위에서 시당에 서류를 요구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마치 공정한 심사가 열려 있는 것처럼 절차를 만들었지만 완전한 폐쇄적 과정이었음. 이는 예비후보와 그들의 주위 당원들에게 당에 대한 불신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함.

□ 전략 부재를 노정시킨 과정

① 후보마다 자기 선거의 전략들이 있는 법인데, 공정경선을 통하여 그런 전략들의 경연장을 만들어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가 높은 전략으로의 상승을 결과물로 얻는 과정을 지도부 스스로 폐쇄시켜 버림으로써, 후보를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 그 과정이 갖는 전략의 부재를 노정시킴.

② 결론론적이지만, 다른 후보를 컷오프시키고 무경선 공천으로 만든 후보가 모두 패배한 것은 컷오프의 이유나 근거가 전혀 합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따라서, 어떠한 성과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실현시키지 못한 컷오프가 되었고,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전략

도 없었기에 컷오프라는 꿈을 쓸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던 것임.

* 구청장후보 컷오프 경우, 적합도 조사에서 현직 구청장과 상당히 많은 표의 차이가 나타나서 컷오프 되었다고 하지만, 동구의 경우 재심이 인용되고 나서 진행한 경선에서는 당원의 경우 2% 차이만 나옴.

③ 기초의원선거에서 두 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기상천외한(?) 전술은 해당자들의 반발과 합리적인 의구심들을 증폭시켰지만, 시당으로부터 맥락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임을 설득, 공유하는 과정은 없었음. 그 전략의 의의와 목표가 공유되지 못했기에, 심지어 캠프에 있는 운동원조차 민주당의 후보 1-가와 1-나 두 명에게 기표하여 기권표가 되는 웃픈 현실을 만들어 버림. 결국 44명 정수의 기초의원(비례 6명 제외)에서 양당체제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비율인 22명에 못 미치는 16명(비례 1명 제외)에 그치는 참패를 당함.

④ 기초의원 선거의 2인 공천이 공통적이지 않고 북구 1개와 중구 모든 선거구를 제외한 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수 조건에서의 전략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데, 특수 목적이나 특수 조건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음, 일반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득표력을 올린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면 중구와 북구 1개 선거구 제외의 의미는 없게 됨. 따라서 의도하는 전략이 없던 것을 넘어서 모종의 사적 차원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함. 결과적으로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의원들임에도(아니면 현직이라서 무사안일?) 지역구별 분석과 전략마련이 없는 속에서 자의성이 초래한 자살행위가 되고 말았음

□ 공정경선 원칙을 전면 무시한 갑질 결정 과정

① 공정경선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 당헌 당규에 원칙으로 정한 이유가 있음. 경선이 갖는 이점이 비경선보다 낮기 때문인데, 국민참여경선 등의 시스템화되어있는 경선방식들이 있는데도, 원칙에 대해 아주 간단히 무시했음.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과정을 굳이 진행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차원의 업무부담감이 당헌 당규의 원칙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가올 정도로 전체 후보들에게 횡행하였는데, 원칙과 시스템을 무시할만한 전략적 판단의 내용이나 근거가 있다면 이를 횡행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개되거나 공유된 전략적 판단의 내용이나 근거는 전혀 없고, 결과 역시 전략이 있었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대참패로 끝났으니 공천과정은 결정권이 있는 단위(혹은 개인)의 거의 갑질 수준의 행위였음.

② 한 구청장 예비후보는 시당위원장의 메신저로부터 “구청장으로 나오지 말고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회유(겉은 회유지만, 본질은 압박임.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의 뜻이기에...)를 받는가 하면, 지역구에서 소위 ‘들보잡’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의힘 울타리에 있던 사람이 1-가나 비례대표에 낙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북구의원 비례 3번 김혜원후보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과 같이, 평가의 기준 및 객관적 지표들이 승리의 전략적 판단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의 관점에서 정해졌다면 수궁이 될 만한 것인데도, 도덕성이나 대표성 등 평가자

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니 전혀 수궁이 되지 않고, 급기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금전 거래까지도 문제 제기하는 등 전혀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3) 공식선거운동 과정(시당과 더바람캠프 중심)

□ 출정식에서 보인 시당과 캠프 간 불협화음과 관성적 활동

① 출정식은 선거 준비 단계에서 본 경기로 진입하는 변곡점임. 공식적으로 캠프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호 간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상승하는 기세를 과시하는 자리임. 하지만 공식적인 첫 모습치고는 시당의 일치된 모습이나 세 과시는 전혀 없었음. 시당 위원장은 아예 참석도 안 하였고, 사무처를 비롯한 당의 각 조직들의 존재감은 없었음. 당의 일상활동 체계가 선거(투쟁) 체계로 전화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음.

② 공식적인 출정식은 문화예술회관 분수광장 하단에 모두 집결하는 그림으로 약 350명의 인원을 상정하고 기획하였는데, 이는 기획자에게 맡겨진 채로 그냥 진행 되었을 뿐이었기에, 민주당의 각 후보의 운동원들만이 모인 이벤트성을 넘어서지 못했음. 분수광장 2층과 3층의 넓은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시민들과 만나도록 하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을 만큼 다분히 관성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음. 당시 현장에 있던 비 운동원들의 경우, “왜 파란 점퍼 안 입은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는가?” 라고 할 만큼 내부 행사로 안주해버리는 결과가 됨(이는 전날 더바람캠프본부장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지만 제기만 되었을 뿐 기획자의 얘기 이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음). 그렇다고 언론을 통한 과시나 폭발력 있는 메시지 전달이라도 있었으면 나았지만 그렇지 못했음. 전반적으로 관성적인 진행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음.

□ 적극적인 득표전략 방안과 노력 부재

① 시당에서의 득표전략은 있었는가? 아니면 각 후보의 전략들을 인지하고 시당 차원의 역할 분담을 하거나 전체 판세를 총괄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는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김두겸의 공개토론 회피전략에 대해 시당 차원의 공격 수단 모색 같은 전략이 없었던 것은 커다란 실책임

② 더바람 캠프의 경우, 득표전략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캠프의 모든 구성원이 그를 인지하고 그에 종속되어 활동 방향을 잡았다고까지는 못함. 비대면이지만 직접 통화를 통한 유권자의 마음 잡기와 전파의 매개역할 조직화의 경우, 지난 시기의 경험상 가성비가 적다는 일부의 판단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서야 실시가 될 만큼, 득표전략의 허술함과 수동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또한, SNS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하면서도, “왜 캠프 사람들은 SNS용 생산물을 자기들이 보기만 하지 전파하려고는 하지 않는가?” 라고 탄식할 만큼 정작 SNS를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끈질기며 목적 의식적인 세세한 득표 활동 체계는 너무나

허술했음. 이의 근원은 후술하는 캠프의 관료성 때문임.

cf) 미국 민주당 경우, 1980년 로널드 레이건에 내리 3차례 대패 뒤 89년 처절한 변화 거치고서 92년 빌 클린턴을 앞세워 정권 탈환. 이때 민주당의 변화 기반을 닦은 이가 론 브라운. 89~93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누가 당의 후보가 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와 관련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듦. 미국 민주당도 각자 계파의 이해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선 전략과 정책을 만들었고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가 없었음. 브라운 위원장 이후에야 ‘데이터 선거’를 시작. 그 뒤 정확한 데이터 기반, 시대 흐름과 사람들의 욕망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근거해 전략과 정책을 짜는 과학 선거 시대 시작. 이런 데이터 선거의 흐름은 버락 오바마에 와서 트로스트팀이라고 불리는 280만명의 트위터 전담팀으로 꽃을 피움.

□ 관성적이고 관료적인 움직임

① 더바람 캠프의 경우, 주요 본부장과 구성원들이 시청에서 시장후보와 같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팀임(특히 기획상황본부와 홍보팀). 따라서 공무원 재직시 형성된 네트워킹 등을 활용한 여러 정보의 수집이나 상황인식에서 폭과 깊이가 넓고 깊을 수는 있음. 하지만, 현장과의 거리감이 있고 아래보다는 위를 더 바라보고 의존하거나 부서 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정보의 공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투쟁조직이나 활동조직과는 거리가 먼 관료 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노출됨. 거기에서 중요업무에 대한 독점화 경향이나 비공개 경향이 시장 재임 시절 근무의 연장인 것처럼 관성적으로 이어짐.

② 특히, 초기부터 전략적인 내용을 담당하겠다고 자임하면서 나섰던 그룹들은 ‘킬러 콘텐츠’라는 말로 전략적인 내용을 표현하였지만, ‘울산만은 미래로’를 제1의 캐치 플레이즈로 하면서도 정작 미래에 대한 ‘킬러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생산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띄워준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이슈에는 거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막판에 플래카드와 TV토론을 인물론의 네거티브로 일관, 중요한 전략, 전술적 판단에서 인식의 불균등성과 비밀관성을 노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략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오리무중인 상태가 유지되다 종결되어 버림.

□ 유의미한 수치들

① 전술한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40.21%의 득표율은 의미가 있음**. 부울경에서 40%를 넘은 유일한 후보이고, 민주당의 전체 광역단체장의 총 득표(9,762,273)가 이재명득표(16,147,738)의 60.5%인데 반해 울산 송철호 후보득표(195,430)는 이재명 울산 득표(297,134)의 65.8%를 기록하여 광역단체장 평균 득표 이상의 득표를 한데서는 선거운동의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략의 부재라는 조건에서는 송후보의 온전한 개인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됨. 특히 비슷한 정치지형이라는 부산과 경남에 비추면 더욱 그러함.

*** 부산은 이재명 대비 득표율 54.8%, 경남은 54.3%.**

② 울산만을 놓고 보면, 김두겸 후보는 윤석열 울산 득표의 73.3%를 득표함으로써 윤석열 득표 대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의 평균 득표율(73.1%)과 비슷하기에 울산에서 두드러지는 월등한 진영논리가 펼쳐지지 않는 것만 평균적인 진영논리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 송후보가 민주당 범위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을 웃돌고 부산, 경남과는 다르게 차이를 보이지만 김두겸의 그것과는 격차가 큼. 이 지점이 교육감과의 격차를 포함하여 시장선거의 한계지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일 것임.

대전과 광역수도 득표비교	민주	광역단체장		9,762,273
		이재명		16,147,738
		전국평균비율		60.5%
		송철호 65.8%	부산 변성완 54.8%	경남 양문석 54.3%
	국힘	광역단체장		11,989,460
		윤석열		16,394,815
		전국평균비율		73.1%
		김두겸		73.3%

4. 해석해야 할 문제

1) 민주진영이라는 교육감 득표와 시장득표와의 불일치

① 교육감 득표(266,647), 시장득표(195,430)의 차이인 7만여 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전통적인 인식에서 본다면 두 사람이 모두 범민주개혁 진영의 주자들로 인식이 되는데, 유권자들이 교육감은 찍으면서 시장 후보는 왜 굳이 김두겸을 찍었는가? 그것도 인물론이 막판에 휘몰아치는 데도 그렇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일 것임.

② 이는 4년 전 취임 초기부터 실시해 온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일관되게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와도 비슷한 의문일 것임.

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ARS방식, 유선 20% 이상 등의 한계점) 조사결과는 일관되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중위권임에도 모두 패배했다는 점에서 리얼미터가 일관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임.

③ 정치지형이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임. 아래의 표를 보면, 부산, 경남 모두 울산과 정치지형이 비슷하고 단체장 모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인 조건도 비슷한데, 단체장의 득표는 정치지형대로 차이가 나지만, 교육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오히려 대전이 단체장은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교육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소위 교육감 투표에서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결정적인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이런점에서 울산 김주홍 교육감후보의 경우, 짧은 시간에 보수의 대표주자를 부각, 온통 진영논리로 접근한 것은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비정치적인 인식수준으로 볼 때 거부감이 드는 후보였을 것임.

지역	시장		교육감	
부산	455,901	938,601	683,210	706,152
경남	431,569	963,473	727,720	720,970
대전	295,555	310,035	178,958	247,077

④ 그런데, 각 구군 별로의 득표 현황을 보면,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음. 아래의 표를 보면, 교육감의 표는 투표율이 상당했던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에 버금가는 데(물론, 비율로는 교육감 표가 훨씬 높음), 시장 후보와는 모두 차이가 남.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시장	36,596	48,425	32,032	41,248	37,129
교육감	51,350	67,468	43,562	52,686	51,581
20대선	54,075	77,783	44,506	64,692	56,078

특히, 동구와 북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개혁진영의 득표가 높고 두 사람의 진영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각 1만 표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득표율로 환산하면, 교육감이 동구 62.5%, 북구 60.3%로 시장이 각각 45.9%와 47.2%를 받은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줌.

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시장 표와 교육감 표와의 차이는 정치 진영 논리가 결정적이기보다는 경향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와중에, 동구와 북구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역의 노동자와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민주개혁진영의 여러 기층 조직과의 밀접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음을 짐작할 수 있음. 특히 동구의 경우는, 아프간 기여자의 문제가 의도적인 발목잡기의 요소가 짙은 형국이기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시의 시장의 삭발 투혼의 노력을 감아먹을 만큼 시장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교육감 쪽은 문제가 쟁점으로 비화한 이후 사후 처리 과정(학교 적응 배려, 상호 이질감 해소)의 배려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밀접접촉면을 넓히는 데서 악영향의 확산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임.

2) 진보정당과 민주당, 그리고 울산의 정치지형 평가

① 전국적으로 정의당은 9명(광역 3, 기초 6), 진보당은 21명(기초단체장 1, 광역 3, 기초 17)이 진출했음. 4년 전에 정의당이 37명, 진보당은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두 당의 위치가 4년 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은 맞음. 중대선거구제가 전면화되면 다른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지나간 선거들과 비교 종합해 본아래의 표를 보면,

	민주	국민의힘	진보 정당	진보 합
8차 지선	34.56	57.9	정의 4.6, 진보 2.97	7.03
20년 총선	26.76, 4.38 (더불어, 열린우리)	39.59, 6.19 (미래한국, 국민의당)	정의 10.28, 민중 2.71, 노동 0.94	13.93
7차 지선 (2018)	47	33.28, 5.24 (자유한국, 미래)	정의 6.45, 민중 5.32, 노동 1.74	13.51
6차 지선 (2014)	23.76 (새정치민주연합)	55.46 (새누리)	통진 12.1, 정의 3.67, 노동 4.98	20.75
5차 지선 (2010)	8.24 (국민참여)	48.39 (한나라)	민노 38.73, 진보신당 6.16, 사회 0.62	45.51

울산에서는 2010년 5차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합이 유효투표의 45%를 넘고, 민주당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2년이 지난 지금은, 거대 양당이 90%를 넘고 있고(92%), 진보정당의 합은 10%도 안 되고(7%) 있음. 그리고 이는 전체 기간을 경과하며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② 민주당이 경향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키워가고는 있지만, 2018년의 특수를 제외한다면 30% 전후를 왔다 갔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힘 쪽이 탄핵 이후 40% 이하의 위상에서 20대 총선을 지나면서 금번의 8차 지선에서 완전 회복하고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반 국민의 힘 전선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진보정당 진영의 힘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을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빈 지점을 진보정당 진영이 온전히 채우고 있지 못하며, 2014년과 2018년 지선만 비교한다면 투표율이 저조한 가운데, 국민의 힘 쪽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진영이 오히려 상호 제로섬식의 길항관계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7차 지선처럼 탄핵같이 기득권 보수 세력의 후퇴가 전제되었을 때도, 양측의 동시 약진이 아닌 한쪽으로의 쏠림이 역력함. 물론 이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대라는 정치적 전략이 유의미하게 되는 결집의 상승효과가 보수 기득권세력의 위축으로 되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조직적이며 입체적인 노력이심각하게 요구됨을 보여줌.

* 역대선거 울산 투표율

8차 지선 52.2%, 20년 총선 68.6% 투표율, 7차 지선 64.8%, 6차 지선 56.1% , 5차 지선 55%

※ 기타 참조 숫자 도표

< 민주와 국힘의 각 단위별 득표 차이 >

	시장	구청장	시의원	광역비례	20 대선
차이(%)	19.57	17.14	21.11	23.34	13.6

내가 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작성자 : 이 만 우

■ 공천시스템 개선 방향

1. 문제점

- 준비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지역위원장과 협의도 없이 지역위원장 모르게 시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또 그런 후보를 시당위원장의 권한으로 전격 공천하여 선거에 내보낸 점.
- 구청장 선거의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일인 단독 공천하여 내보낸 점.

2. 문제의 근거

- 남구갑 제1 선거구에 구의원후보 공천심사에서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텃밭을 일구어 온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았던 젊은 후보 두 명을 공천해 선거에 내보낸 점.

물론 ‘가’번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잘된 공천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남구 제3선거구에 현역과 또 한 명의 젊은 후보를 내세워 결국 누가 봐도 유능한 현역 정치인을 낙선하게 만들었고, 또 한 명의 젊은 정치인에게는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부담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 구의원 선거의 경우 한 명씩만 공천했으면 1:1구도로 무조건 각 선거구마다 한 명씩은 당선되어 여야동수의 구의회 구성원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

3. 제기된 문제의 폐해

전략공천에는 대개 두가지 근거를 가지고 전략공천을 실시한다.

첫 번째는, 확실한 우위에 점했을 시 누구를 공천해도 승리가 확실시될 때 예를 들면 호남지방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아예 당선 가능성이 전무 할 때 예를 들면 대구지역 같은 경우 경험을 쌓고 개인적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 출마할 때.

그런데 이번 지선에서 남구청장선거와 같은 경우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전쟁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선도 실시하지 않아 흥행에도 실패를 했었고, 정치신인일 경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

회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독 추천된 후보조차 준비과정도 없이 언론에 노출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뛰어들 문제.

4. 제안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공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후보들을 언론에 전략적으로 노출도 시키고 공개장소에서 토론토 거치면서 당원들 뿐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선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래야 본선에서의 경쟁력, 득표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단수 추천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울산시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중구후보가 가장 뒤떨어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되었다고 본다.

만약 비례대표도 시당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었다면 분명 뒷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회 역할

1. 문제점

○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부족했다.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지역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역위원장의 목소리가 당원들에게 권위를 갖지 못했고 각 후보들도 시당 눈치만 살폈지 지역위원장 눈치는 볼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 문제의 근거

지역위원회 차원의 선거지원이나 조직지원 등이 없었다.

지역위원회가 갖고 있는 체계적인 조직도 없거니와 예산도 없다. 기껏해야 선거사무실을 한번 씩 돌아보면서 떡을 들고 가서 격려한다든지 하는 일반 지지자들도 할 수 있는 정도 차원의 지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조직적인 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3. 문제의 폐해

지역구 전체 후보들간의 원팀을 이룰 수가 없다. 남구 전체 혹은 지역위원회 별 각 후보들간에

원팀을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도 같이 참여하고 유권자들이 봤을 때 민주당은 제대로 원팀을 이루어 잘하고 있구나 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깨끗한 모래알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다.

개개인은 깨끗하고 열정이 있는데 단합된 원팀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4. 제안

○ 예전의 민주당처럼 지역위원회(당시에는 지구당 체제)를 살려야 한다.

시당을 축소시키고 지역위원회 사무국을 부활시켜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지역위원회의 힘이 시당 전체를 움직이는 구도로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권한과 역할, 예산이 시당과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앞으로도 어떠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 1차 공천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편성권도 가져야 한다.

현재는 시당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울산광역시의 모든 후보들이 시당위원장의 눈치만 살피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을 뽑는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지역위원장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고 2차로 지역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보고 난 뒤 권리당원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당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뽑힌 지역위원장에게는 공천 권한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 내가 본 후보 캠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 준비가 부족했다.

현역의원들조차 지난 4년간 지역구에서 외연확장에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당원들이나 몇몇 지지자들만 선거에 참여했을 뿐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선거였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부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봐도 외연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중도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우리편으로 끌여 들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다보니 선거 운동에 한계가 드러나고 운동하기가 힘이 들었다.

2. 문제점의 근거

○ 후보 본인이 관리하는 조직이 전무 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조직 구성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심참모가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 그렇게 참여한 구성원들이 지인을 또 참여시켜 선거운동을 치러야 했다. 제대로 준비된 선거라 할 수 없었다.

3. 제안

○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4년간 그 지역에서 꾸준히 자기 사람을 만들고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산악회, 봉사단체, 공동취미활동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해 놓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팀을 만들어야 탄탄한 기반위에서 안정되게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선거가 시작되고 난 뒤 급조된 조직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현역의원 후보들이 지난 4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점이 자기혼자만 깨끗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 원팀을 이룰 수 없었던 원인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위원장의 권한 문제이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후보들에게 아무리 원팀을 강조한들 따라 오겠는가?

1차 공천권이 지역위원장한테 주어져야 하고 지역위원장이 공천하지 않은 후보는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시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지역위원장의 말을 듣고 원팀을 이룰 수 있겠는가?

2. 제안

시당위원장 체계가 아닌 지역위원장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시당조직을 축소시키고 지역위원회를 살려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광역시당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와 지역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지역위원회에 전달하고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된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사무국장, 회계, 기획 등 필요한 인원을 두고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광역시 전체조직을 어떻게 시당에서 전부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지역의 문제점이 나 후보들의 면면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본다.

■ 마무리 발언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들에게 있다”는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소리를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서 듣지 않도록 철치부심하여 개혁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런 과정만 거치고 혁신을 해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이 민주당을 버리는 사태까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지역 집담회 정리

* 본 정리된 내용은 2022. 6. 9.부터 2022. 6. 9.부터 6. 27.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담회 내용을 가능한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날것 그대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집담회는 중구, 남구을, 북구 지역위원회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시당에서는 2회(6월 15일, 16일)에 걸쳐 공개 진행되었습니다. 5차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내어 참석하시고 의견을 내주신 60여 당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1회차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울산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었다. 흐름을 바꾸기 힘들었다. 지금 정신차리고 제대로 바뀌내지 않으면 20년 넘게 국힘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내 나이 80후반이다. 살아생전에 다시 민주당 집권을 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 연락소에서 일했다. 시장캠프와의 소통이 너무 힘들었다. 내려오는 오더는 수시로 바뀌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시장캠프에 전체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없는 느낌이었다.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낸 선거였다.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 기초단체장 캠프에서 주민소통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했다. 캠프에 찾아오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구정 잘했다 한다. 민주당 구의원들과 시의원들도 의정활동 열심히 잘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야기 말미에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중앙당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중앙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지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다. 정말 어려운 선거였다.
- 과거 한명숙 총리 시절 초기 정당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한미 FTA 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습이 어려웠다. 그만큼 중앙스피커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선거를 시당에서 중심잡고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선 마치고 바로 시당에 기획단을 구성했어야 했다. 시당이 중심을 잡고 끌고가지 못하니 캠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에 임했다. 당연히 시장-구청장-시·구의원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다. 원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거전 기획*전략팀 구성은 필수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패배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본다. 대선때도 그랬지만 후보나 당지도부에게서 절실함을 느낄 수 없었다.

- 이번 선거는 집토끼로부터도 외면당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주변분들로부터 탈당이 야기를 들었다. 그분들 이야기가 민주당 좋아했고 지지했었는데 지난 4년동안 전화한번 없었다며 섭섭해 하는 소리를 들었다. 단체장과 시·구의원 당선되었어도 당원들과 상시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섭섭함들이 매우 커 보였다.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 시당에 당원들 소리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약하다. 당원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상시적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밴드가 있다고 하지만 밴드는 당원들이 서로 싸움하는 공간으로 흐르기 일쑤다.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소통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 공천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공간에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아래로부터 공천하는 흐름 잡아갈 필요가 있다.
- 선출직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부족했다. 시당 상설위원회등에서 좀더 세밀하게 캠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있었으면 좋겠다.
- 당원이지만 안찍겠다고 말하는 분들 만날 때 힘이 들었다. 시당의 책임이 있다. 당이 책임지는 모습의 메시지 필요하다. 공관위가 있었다지만 공천에서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 지방선거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는 당의 통일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후보자현수막 시안은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 멀리서 보더라도 '아! 저것은 민주당 현수막!'이라는 느낌을 주는 기본 포맷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약하다.
- 동시지방선거에서 단체장후보들의 스피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서 우리당 후보 유세차에서 상대방 후보 이름만 연속적으로 나온다. 지나가는 차들은 잠시 스쳐간다. 이름은 들리지만 내용은 대부분 듣지 못한다. 결국 국힘쪽 후보 이름만 듣고 지나가게 된다. 우리당 후보들이 우리당 후보들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시장후보가 오면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구청장 후보 역시 지역에 있는 우리당 후보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힘을 내고 힘을 보태야 한다.
- 지난 2018년 당선된 이후 지역을 매일 걸어다녔다. 그리고 식당, 동네 술집 등 10여군데 거점을 만들어내는데 2년 넘게 걸렸다. 평상시 지역을 다져놓아야 한다. 선거기간 13일은 그동안의 성과를 수렴하는 기간이다. 선거기간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은 거대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어렵다.
- 시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인이라 처음에는 시당의 지원이 없는 부분에 섭섭했다. 그런데 사실상 시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마땅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선거는 자신이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한다. 4년간 정말 열심히 하여 당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 시장캠프에 가면 소통이 되지 않았다. 본인들 선거만 생각하고 있었다. 캠프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없었다. 지역과 소통을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많이 화났다.
- 소통도 안 되고, 역할도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이번 선거가 2년 뒤 총선에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 당에 요청사항이 있다. 지역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상설위원회가 있다. 과연 남구와 중구에도 농어민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지역에 맞게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점을 중앙당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
- 이번 선거 투표율이 50% 초반이다. 60%였다면 격차는 더 좁혀졌을 거라 생각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언론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언론에 대한 시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 민주당이 좋아서 가입했고, 대선과 지선을 경험했다. 이번 선거에 직접 결합하면서, 선거기간 내부총질이 계속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 당원으로서의 자부심들이 부족한 것 같다. 당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공간을 열어서 당원들간에 교류도 하고, 소통도 되었으면 좋겠다.
- 부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를 확대하고 지역위원회별로 일정인원이 할당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견들이 원활하게 시당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2회차

- 공천과정 심사에서 잘못 되었다 생각한다. 공천받은 사람들이 지역위에서 활동했는지, 지역의 당원들에게 인지도는 있는지 등을 확인받는 과정이 없었다. 지역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없었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배제된 것은 무척 아쉽다. 남구율은 자체적으로 투표까지 하려고 준비했었다. 그런데 공천은 공관위 소관이라며 시당에서 제어했다.
- 선거에서는 이슈와 전략이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단체장캠프에서 방향이 너무 늦게 나왔다. 거기예다 제대로된 설명이나 교육도 없었다. 전략의 부재였다. 특히 지역이슈를 주도해나가지 못한 것은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 후보들 지원부족 하소연하는데, 시당이나 단체장 캠프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의 문제보다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한다.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각 후보자들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시당 또는 단체장 캠프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각 후보캠프와의 연결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준비된 후보들이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인재육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단기에 발굴된 후보라도 일정 정도의 트레이닝이 요구된다. 후보들간에 서로 공감되지 못하면서 오해도 많이 생겼다. 교육과 소통,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
- 기초공천을 ‘가’와 ‘나’ 모두 낸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우리의 경험부족, 노하우가 없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 선거 때 바쁜 조직이 아니라 선거 준비하는 2년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 때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천과정을 통해 지역위원회가 힘을 받고 당원들과 호흡해야 선거기간 당원들과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 당원모집이 절대기준이 될 수 없다. 당원모집에는 허수가 많다. 이러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
- 지역에 뿌리내린 인재를 발굴하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개인 역량을 높이는 활동성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다.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 총선이 2년 남았다. 지금부터 지역 리더를 세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준비해야 한다.
- 대선 패배 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기초의회라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이 필요했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가.나를 일괄적으로 공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공천부터 투표일까지 50일간의 활동이었다. 시당과 단체장 캠프에서 정책이나 전략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상대후보가 유세차 2대 돌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당에 알렸으나 대응이 없었다. 너무 아쉽다.
- 대선 이후 바람이 국힘쪽이었다. 4년 뒤 다시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른다. 희망있다.

-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내지 못했다. 선거운동기간 당원들의 힘을 활용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영남권을 민주당의 불모지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 의식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 총선에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비례대표 지역할당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 몸집을 키우고 지역에 내려와 단체장 후보 등에 출마하는 로드맵을 중앙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 투표당일 투표소앞에 부정선거감시단이란 민간단체가 빨간조끼를 입고 상주한 일들이 있었다. 지난 대선부터 있었다. 이 단체는 다음선거에도 움직일 것이다. 대응이 필요하다.
- 시장선거 바람이 가장 큰데 많이 부족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필요했다. 해상풍력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만약 해상풍력을 주공약으로 결정하고 전략화하기로 했다면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짚어야 했다.
- 울산백서 필요하다. 왜 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개선점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과도 공유되었으면 한다. 잘 만들어진 백서는 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 공천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가와 나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이해는 간다. 전체 선거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패착이었다. 결국 남구에서 2군데 기초의원을 뺐졌다. 당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 남구 ‘마’선거구의 경우 ‘나’후보 추천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초 ‘나’로 공천된 사람이 사퇴하자 공천에서 탈락되었던 사람을 무리하게 등록일 며칠을 앞두고 공천했다. 그런데 ‘바’선거구에서는 같은 상황임에도 희망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왜 2선거구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 홍보지원을 부탁했지만 지원되지 않았다. 선거기간에는 웹자보 등 선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당에 도움을 요청하면 잘 받아줬으면 한다.
- 이번 공천과정에서 큰 줄기는 권리당원 모집, 당선가능성, 대선기여도 등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인 잘못을 있겠지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본다.
- ‘가’와 ‘나’ 공천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국힘이 6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국힘에서 2명을 내면 ‘가’후보가 40%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국힘의 ‘나’후보가 20%정도 된다. 잘 받아도 25% 미만이란 계산이 나온다. 우리당 ‘가’후보가 25%이상 받지 못할 것이란 판단을 미리 한다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거전에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이번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40%대의 득표율을 보였다. 국힘에 열세지만 민주당이 확실하게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위원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의원들의 선당후사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공천과정에서 ‘경선’을 이유로 탈당하고, ‘가’를 받지 못했다고 사퇴하고 선거운동도 돕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공천을 통해 당선되었던 의원들이야말로 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다.

3회차

- 예비후보기간엔 재미있게 해보자고 후보들간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말 잘 진행되었고, 좋았다. 2014년 출마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 외로웠다. 기초의원후보와 광역의원후보가 함께 지역을 돌며 인사하는 것 보는 주민들 반응도 좋았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국힘과 진보3당도 따라했다. 그런 분위기가 선거기간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체장 캠프가 선거 원팀을 이끌어가기보다 일방적 독주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다. 출근인사도 일방적으로 잡고 무조건 참가를 요구했다. 기초*광역의원들은 지역에서 인사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번번히 묵살되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서로 부딪치면서 원팀으로 힘이 모아지질 못했다.
- 동구청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특히 시장후보가 진보당 후보와 함께 유세할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선거운동 한다는 느낌이었다. 밑에서 뛰는 기초*광역후보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기초의 경우 ‘가’와 ‘나’후보를 모두 신인으로 내는 것은 무리였다고 본다. 특히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 ‘가’와 ‘나’후보가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구도가 아쉬웠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경쟁상대인 후보와 함께 다니는 모습까지 보았다. 기초의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시장캠프부터 기초의원 캠프까지 원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역유세 등에 대한 지침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걸 보면서 연락망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시장후보 캠프를 가보면 시청 시장실을 옮겨놓은 듯 보였다. 위계질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었다. 그런분위기에서 비판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캠프로 들어가기 힘든 분위기였다. 형식적으로 감투만 부여되었을 뿐 소외된 기분이었다.
-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들도 광역단체장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서로가 표를 깎아먹는다고 생각한 듯 싶다. 심지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에게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지역유세시 함께 서있긴 했지만 진심으로 원팀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후보들 각자가 개인플레이로 치러낸 선거였다.
- 단체장 캠프에 가면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당 & 지역위원회)에서는 후보가 당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4년동안의 협력관계가 긴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당과 선출직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 선거초기 시장캠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낙관적이었다. 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시야에 머물러있었다고 본다.
- 지방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흐름도 있지만,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있다고 본다. 이번 결과를 보면 선출직들이 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자기 조직을 만들어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늘공들이 의전에 익숙해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자신을 과대 평가했다고 본다.
- 정책마저도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었다. 시장캠프, 구청장캠프에 요청해도 지역공약을 보내주지 않았다. 기초*광역의원 후보들과 기초*광역 단체장이 연결되는 공약들이 동네공약으로 들어가 있으면 힘을 받을 텐데... 많이 아쉬웠다. 당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주었으면 했는데 많이 아쉬웠다. 너무 안일했다.
- 캠프를 돌아다녀보면서 계획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낌 많이 받았다. 어떻게 계획없이 선출직에 나왔는지 너무 궁금했다. 선거에 처음 뛰어들어본 나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사실상 캠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미리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의 경우 중간 현수막 교체시 '원팀'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구의원, 구청장, 시장을 원팀으로 찍어달라고 했다. 마지막 원팀 작전이 먹혔다고 본다. 그게 표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당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시당이 적극적으로 각 후보 캠프를 컨트롤 했어야 했다. 시당의 강력한 지도력이 아쉽다.

- 후보들이 각자 자기계산 뿐이었다. 국힘은 동네 행사시 함께 무리로 참석하는데 우리당은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참석했다. 평상시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 당원과 낙선자들을 다독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위로의 시간과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회차

- 선거막판 시장캠프 부위기는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다.
-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는 내용들이 선거기간 너무 많이 떠돌았다. 공천문제, 시당 운영문제 등 sns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데 힘이 분산되는 느낌이었다. 최소한 공천신청을 할 정도의 당원이라면 선거기간에는 참고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소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밴드 등을 보면 우리끼리 싸움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보는 당원들의 실망감이 크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가지려하다가도 실망하게 된다.
- 국힘은 전략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를 집중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생단체 등 조직을 ‘나’에게 밀어주는 분위기였다.
- 경북에서 생활하다 처음으로 울산에서 선거를 지켜봤다. 우리당 후보가 유세할 때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응원해주고, 버스에서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래도 울산은 희망이 있는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20대는 지역보다 세대투표 경향이 크다. 특히 지역선거에는 관심이 적다. 집단적 반응은 대통령선거 정도다. 특히 20대는 인터넷 정보에 매몰된다. 20대를 위한 지역차원의 접근이 얼마나 효율성 있는지 의문이다.
- 울산지역 장애인단체와 시설 100여개를 모두 돌아다녔다. 그동안 장애인 공약이나 정책들이 있었지만 당사자성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례후보였지만 반응은 좋았다. 처음으로 투표했다는 연락도 제법 받았다. 당선되진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개인역량의 한계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3%이상은 힘들어 보인다. 지역활동에 대한 의문이 든다.

- 선거때는 악수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당선된후 거리에서 만나 인사했더니 모른척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후보 짝기 싫다고 하더라. 평상시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 선거결과는 절대 선거운동기간 길거리 유세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전에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말그대로 그동안 준비된 결과를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기간이다. 평상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 당에서 고민하고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다.

5회차

- 대선영향이 컸던 것 같다. 대선전에는 돕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해주시던 분들이 대선 패배 후에는 소극적이었다. 동별 득표결과를 봐도 대선영향이 반영되었다. 4년동안 단체장이나 시.구 의원 모두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흐름은 어쩔수 없었다.
- 최종후보로 낙점되지 않아 출마하진 못했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함께 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 시장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서도 응원해주는 모습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나? 당원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 지역위원장의 부재가 안타까웠다. 지역 선거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자 캠프별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구심점이 보이지 않았다. 지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었어야 한다.
- 대선패배에 따른 불리한 환경이 예견되었는데도 전략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전략의 부재는 캠프내 통일성을 끌어내지 못했고, 잡음이 생기는 요인이 되었다 생각한다.
- 일부 지역은 많이 아쉽다. 선거운동기간 몇몇 악재들이 있었다. 악재들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바람이 너무 거세었다. 후보들의 역량으로 넘기 힘든 바람이었다.
- 평상시 당원들을 챙기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출직에 뜻이 있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당원들에게 전화하고 챙겨야 하지 않는가? 평상시 활동이 선거에 반영된다.
- 정권교체가 된 뒤 더 긴장했어야 했다. 더 단합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단합된 모습보다는 와해되는 느낌이었다. 대선때 지역에서의 모습은 정말 단합된 모습이었다.

-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이유는 간명하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원팀을 이뤄내지도 못했고, 공격도 많았다.
- 출마했던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4년간 의정활동 잘해왔다고 스스로 자평하지 마라. 평가는 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억울해 하지 마라. 냉정하게 평가받은 것이다.
- 현실정치 똑바로 보고 2년, 4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정치는 흐름이다. 민심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 준비된 사람만이 흐름을 탈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자리를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 언론에 비춰지는 중앙당의 모습에 실망이 컸다. 선거에 주는 영향이 컸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국민정서와 괴리된 정치적 논쟁속에 휩싸였다. 당 내부도 서로 책임을 묻는 공방만 보였다. 중앙당이 선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 00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들 대부분이 지인들이었다. 민주당스럽다는 느낌이 없었다. 원팀을 위한 다른 후보캠프와의 연대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 지인들에게 연락해보면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은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당 모습 보면 찝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언론에 비춰지는 비대위 갈등으로 인해 당에 대한 실망이 커 보였다.
- 현재의 바람이 유지된다면 2년뒤 총선도 어렵다. 지금부터 선거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 동당협위원장인데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의원들은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모른다. 당원과 지역주민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피켓 들고 율동하는 것으로 주민들 마음 얻을 수 없다.
- 국힘은 동별로 당원 소모임이 몇 개씩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찾아볼 수 없다. 동별 소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선거를 하면서 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바람에 기댄 선거였는데 이번 바람은 국힘쪽이었다.
- 당의 지역조직이 가동되지 않았다. 상설위원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평상시 사업도 하고 점검되 되어야 한다.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후보 당사자도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했다. 반성해야 한다.
- 유권자들은 우리를 앞서간다.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유념하자.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되새기며 다음을 준비하자.

[당원들의 목소리]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아래의 내용들은 울산시당 권리당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 문자를 발송하고, 7월 3일까지 시당 메일로 접수된 내용들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당원분들이 해주신 의견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갈매기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1. 문제점

시당위원장(이상헌의원)의 선거운동 불참 그리고 지역활성화에 협조가 안됨.

특히 국회에서는 일을 하는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일을 안하는게 맞음.

시당위원장의 위치가 된다면 시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이는 것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 문제라고 느끼게 된 계기 또는 근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적이 있는지요?

울산시장, 5개 구군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습니다.

울산지역을 책임지는 의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울산지역의 현안에도 관심이 없고 울산지역에서 활동이 없는데 무슨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 의원이 자신의 지역이고 자신이 시당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3. 제안 (개선 또는 해결 방안 /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

울산시당 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 시당위원장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고 차기 국회에도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젊고 의로운 분이 시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 민주당 수박들 출당시켜라

※ 선거패배원인 : 전 비대위원들(박지현, 윤호중)~

※ 민주당 수박들 출당시켜라. 이들이 민주당에 있는 한 당원들 지지를 못 받을 것임.

※ 최강욱의원 징계 >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 협치할 대상을 보고 협치하라. 국집은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 이재명위원을 당대표로(지금 당대표 권한을 축소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분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님. 그저 이재명위원이 당대표 되는 걸 막으려는 꿈수로 밖에 안 보임)

※ 지금 강한 민주당을 이끌 사람 이재명의원 뿐

※ 제발 좀 힘있게 싸워라. 언론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한게 뭐가 있냐. 180석이란 의석을 만들어 주면 뭐하냐? 힘있게 끌고 나가질 못하는데~

※ 민주당의 수박들이 계속 목소리 내는 한 지지 못 받을 것이다. 특히 박지현~

※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분(이재명, 정청래,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양문섭등~)

※ 지금 민주당하는 거 보면 속 터지고 짜증, 스트레스

행복동이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 원팀을 이룰 수 없었던 원인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계파 정치에 의한 계파간의 갈등 및 권력 독점욕
2. 구체적인 사례
 - 일명 “문파” “대깨문”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문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민주당원 및 당직자들 EX) 깨시연 및 이낙연 캠프 관계자
 - 나의 동료중 한 명도 이번 대선에서 본인은 철저한 대깨문이라며 문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선거 끝난 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듯한 당당함이 더 어이 없음. 생각 같아서는 동료고 뭐고 얼굴도 안 보고 싶음.
3. 개선 방안
 - 당내 해당 행위자들 출당 조치.
 - 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 공천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 현재의 대의원제에 의한 의사 결정은 수십만명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의 소리가 소수의 대의원에 의해 왜곡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
2. 구체적인 사례
 - 작금의 상황이 전부 구체적인 사례임.
 - 집단 지도 체제. 집단지도 체제 절충안
 - 사개특위 열리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국집에게 넘기겠다.
 - =>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 저들은 언제 약속을 지킨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민주당은 국집에게 신사이고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는 주인 노릇을 하는가? 국회의원 선거때만 주인인가? 앞으로 선거 때 국민을 위해서....국민..국민이라는 핑계 대지 말라. 정말 X 나온다.
3. 개선 방안
 - 대의원제 폐지
 - 당의 중요 정책 결정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법사위 사수 건 등) 당원들 의견 수렴 (적어도 50%)
 - 특히, 이번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은 저 극악무도하고 후안 무치 한 세력들에게 맞서야 하는 힘 있는 야당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므로 당원들 의견을 60%이상 수렴해야 한다.

하정이 : 공천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공천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 되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천폐지 요구!

시당위원장은 당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네요.

루피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대선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욕에 취해서 경선패배에도 불복하고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이낙연캠프에 문제가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라 본다. 불복의 지저분한 행태로 이낙연 지지자들도 컨트롤 못하는 지

도자는 필요 없다고 본다.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비대위의 사과 요구로 찬물을 끼얹은 결과라 볼 수 있다. 힘을 한데 모으는 것도 모자랄 판에 사기를 저하 시키는 박지현은 최악이었다. 또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본인 뇌피셜로 최강욱에 타격을 입히고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장난에 당원들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박지현의 해당행위로 보는바 하루빨리 출당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양보만 할것인가? 협치도 할만한 대상이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당원들은 제대로 싸워봤으면 한다. 당원을 믿고 싸워달라 호소하는 거다. 민주당은 비겁해 보인다. 대의도 상실했다. 멍청해 보인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내준다. 못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당원으로서 민주당에 바램은 당헌당규 개정해서 민주주의 기본틀인 1인1표의 다수결의 원칙을 8월 전당대회 부터 하길 바란다.

법사위 사수해서 이재명위원의 1호 공약인 민영화를 막는 법제화 법안으로 막았으면 한다.

공천률은 전략공천은 썩다 없애고 경선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후보가 지역후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민주적으로 민주당스럽게 민주당이 존재해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와 국힘당과의 제대로 된 싸움을 당원들은 바라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싸움을 하실분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당원들은 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이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온이온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1. 문제점

- 이번 지선 패인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당의 문제점이 정말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위(박지현)의 분탕질이 큰 문제 점이지요

2. 문제라고 느끼게 된 계기 또는 근거

- 계기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래 분탕질 하는데 ...!
그리고 근거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지선은 그냥 중앙당 문제입니다.

3. 제기된 문제가 가지는 폐해

- 이번 지선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가 문제죠. 빨리 민주당이 정비하고 야당으로써 공격해야 합니다. 지금 윤통 내각 보세요. 엉망에다가 대통령 부인이 저리 설치고 다는데 양반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4. 제안 (개선 또는 해결 방안 /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제안)

- 이번 지선은 지방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 없었습니다.
- 앞으로 지방에서 민주당이 자리 잡을 방법은 똑똑한 인재 영입하고, 특히 울산, 경상권은 민주당이 국힘보다 열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상권에서 어떻게 바닥을 잘 닦아가면서 올라서느냐, 이게 다음 총선 및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면 중앙당 인사 중 비중있는 인사들이 자주 내려와서 간담회 지역 시장 등을 자주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수월 할거 같습니다.

강찬 : 민주당은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기존 임원들로의 답이 나오질 않는 듯 합니다.

정부 부처별 정책이 바람직한지 파고들어 심사 비판할 수 있는 전문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플레이만 정답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도되어야 합니다. 민심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진실로 모르십니까?

남 탓하며 촛불 집회의 공을 검사들에게 물려준 정부의 책임 그것은 무능에서 나왔습니다. 반 이재명으로 이낙연계 인사 홍영표 등 인사들은 공천권만 생각하는 기존 임원들 같습니다.

답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말고는 대신 꾸리고 갈 인물이 안 보입니다. 혁신은 경험 해 본 사람이 잘 할 것입니다. 결집해서 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잘 견지해서 판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봅니다.

미나 :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은 비대위 윤호중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선을 그렇게 하라고 당원들이 요구했는데 귀를 막고 당원 얘기 하나 안 듣는 비대위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이번 지선 참패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지만 지선 도움 하나 안 된 오히려 지지층을 분리시키고 내부총질만 일삼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님 때문에 그나마 경기 사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박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의원님 책임이라는 얘기에는 당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 의원님의 민주당을 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 희생한 민형배 의원님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개혁파인 처럼회를 두고 책임론이라던지 해체를 하라던데 조직도 아닌데 무슨 해체를 합니까?

개혁적인 의원님들 적극 지지합니다.

북구주민으로서 이상헌 의원님의 활동도 감사하고 이재명의원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도기봉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문제점

- 1) 대선 패배로 인한 실망감과 지지층 선거 불참
- 2) 대선 총력 실패. 안철수 후보 사퇴 통합. 준비 부족
- 3) 거대 여당으로 출발하였으나 개혁에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허둥대고, 분열하고 안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앙정당에 실망감
- 4) 지방선거 후보의 경쟁력 미흡
- 5) 계파정치, 문파, 개팔 등 / 통합 상생발전하는 구심력 지도력 부족 등

2. 제안 (개선 해결방안)

- 1) 입법을 통한 개혁완수. 치열하게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당론을 정하고 추진, 완결
- 2)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3) 폭넓은 인재풀 운영
- 4)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거의 기본으로 삼고 총력전
- 5)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길이 되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성과를 만들고, 기회가 없을때는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6) 세대별, 계층별.. 구체적이고 정확히 선거이슈를 선정하고,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외연확장 등

이어폰 :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자 받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 참여해 봅니다.

글을 쓰는 이 와중에도 최강욱 국회의원의 윤리위원회 징계 6개월 판정이 나오고, 이제 몇 안 남은 지킬

것 중 하나라는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답답한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대선을 통해서 야당이 되고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인걸 감안해도 이번 지선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이 위기상황에서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남아있던 앙금을 바탕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편을 갈라서 내부당권 쟁탈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싸움의 과정은 지선 시작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선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여당으로도 지지층의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못한 결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들의 손으로 대권을 받았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이라는 아이콘의 후광을 받으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여당이 되었습니다.

허나 세월호로부터 이어지던 촛불정신을 얼마나 계승했는지를 돌아보면 형식적 절차를 따라가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과정의 공정을 믿으며 오랜 시간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넘마가 된 공수처법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당간의 이익과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처음에 기대와는 많이 달랐으며 그 많이 다른 공수처법도 정말 오랜 기간 후에야 결과물이 나온 걸 봤을 때 처음으로 촛불을 들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후에는 같은 정당의 사람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응원하던 당원들을 강성지지층이라 하며 태극기부대처럼 보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이야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고 지선을 이야기해보자면

가장 큰 원인이 무어나고 말한다면 당내 불협화음과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불협화음은 이전부터 나오던거니까 그냥 둔다손 쳐도 당시 상황을 보자면 집권전부터 이미 소음이 많았던 윤대통령은 집권후에도 여전히 기존 대통령보단 대선후보 시절처럼 행동하며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고, 전체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차원에 대한 호소라도 하면서 충분히 해 볼만한 판이 나왔었다고 봅니다.

허나 당시 민주당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는데, 경선 공천 여론이 높았음에도 시간이 없네, 뭐네 이야기하면서 앞에 많던 시간은 다 까먹고 코앞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기껏 잡아놓은 바람도 날려먹는 초유의 사태를 근 일주일간 계속 보여줬으며, 하루하루 뉴스를 보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뉴스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여론조성도 가능한 상황마다 찬물 끼얹듯 전략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만 나오는 민주당을 보면서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박지현을 비롯한 비대위의 행보입니다.

이미 선거는 시작했고 비대위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후보와 운동원들이 발에 땀 나도록 허리가 휘도록 분주히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비대위발 기사가 나올 때 마다 지지자분들은 정말 혈압이 올랐을 겁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잡음이 많던 시절에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서울시장이라던지 혹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면서 후보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주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당시의 비대위를 보면 포커스를 후보나 당에 주긴 커녕 비대위 대표가 받으려고 저러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고, 이게 한 두번도 아니고 잇을만하면 나와서 앵무새 마냥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있는 지지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도 박지현 전 비대위 대표의 행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같은 당의 사람이라기보단 당의 바깥에서 당을 보며 혼수하는 느낌 그 이상 그 이하도 들

지 않습니다. 애초에 비대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만든 조직에서 인사 검증이 안된 사람을 갑자기 저런 식으로 올리는 건 비대위를 만든 당의 주요관계자들이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급기야 후반엔 박지현 대표가 발표하고 윤호중 대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박지현 후보가 사과하고 이후에 의견일치가 안됐니 뭐니하며 다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는 정신이 멍해지는 타임라인 행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지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낮은 투표율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후보선별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선이 끝날 때 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던 민주당의 행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광주의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본거지에서조차 국민들에게 신용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당이 변해야 하는 부분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크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1. 현재의 대의원 표수를 바꿔야 합니다.

- 현재의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수가 문대통령 초기와 비교해도 훨씬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의원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당내 기득권이 존재하며 그 기득권의 내부 정치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의 폭이나 선택의 종류 자체가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대의원의 표는 기존 당원처럼 1표가 되거나 준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당내 의사 결정의 많은 부분을 최대한 당원투표로 반영해야 합니다.

- 당내부 고위관계자들이 만드는 조직의 퀄리티가 어떤가는 이번 비대위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작 최고위원이라던지 당내 투표를 해보면 원하는 사람은 나오기 전에 내부회의에서 컷오프당해서 이미 의견반영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여론조사에선 F였는데 투표하려고 가보니 A,C,E 세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너무나 잦습니다.

3. 권리당원 게시판이나 정책 제안 게시판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 얼마 전 인터넷 방송을 보니 나름 민주당 내부 게시판을 볼 것같은 분들도 저 두 게시판을 거의 안 본다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에 만들어둔 12시간에 글 하나 정도 작성이 가능한 저 게시판들은 단순히 돈 내고 들어오는 당원들이 욕이나 하려고 만들어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과거 국민청원처럼 적어도 민주당은 당내 당원들의 직접적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반영을 해줘야 제대로 홈페이지도 돌아가고 당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당에 대한 의견 피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4. 친 페미니스트 성향에 대한 손절 필요

딱 꼬집어서 특정 성향을 가진 지지세력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과거 문전 대통령과 180석을 얻던 시대의 민주당은 달랐습니다.

여성친화라던지 가족친화같은 얼마든지 큰 테두리내에서 반영하며 의견교류가 가능함에도 특정 성향의 지지층에 대한 필요 이상의 친화는 정 반대로 그 세력과 척지는 반대세력의 지지기반을 그만큼 잃어버릴 확률이 크다는걸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지선까지 이어지는 투표성향을 보자면 얻은 표와 잃은 표가 연령대별로 성별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걸 정당이 가질 아니 민주당과 같은 전국구 거대 정당이 가져야 할 성향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포용력으로 다수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락을 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당원의 가입은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이 분들은 슈퍼챗이나 후원을 보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해서 자신의 답답함이나 정책적인 반영을 원하는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타진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는 국민

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분들이 민주당의 자산이고 핵심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원들조차 납득시키고 만족시킬 수 없다면 민주당이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전히 대통령과 여권은 세계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답답한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는 중이고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미국발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지금 당장 저희같은 서민들의 피부에도 와닿는 와중이구요.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시기는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내부다툼으로 뉴스를 장식하고 여당과의 제대로 된 밀당도 못하는 무능한 내 당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요즘입니다.

제발 지선에 대한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홈페이지를 답답한 마음에 들어가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정치인 후원에 대한 설명같은 부분이 항상 메인 공지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1인당 1년에 10만원은 100퍼센트 환급된다는 이런 부분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당원을 가입시켜두고 선 정작 쓸 수 있는 방향을 몰라서 이렇게 방치하는 느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olympuz : 공천시스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제도는 폐지됨이 마땅합니다. 민심과 당심으로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제도를 가지고 그걸로 득권을 유지하려고 함은 잘못된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미 : 하소연 좀 합시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진실하게 할 사람 이재명의원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민주당 기득권자들 정말 싫습니다. 민주당원 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 됐음해서 가입했고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이재명을 위해 선거운동했나요? 울산 모국회의원만 봐도 이재명지방선거운동하러 울산롯데호텔앞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올라와 손 흔들고 하는 모습 보고 뒤로 빠질려고 만하고 사회자는 땡기고...

아! 이재명 의원을 진심으로 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딱 보이더군요.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아니었음 민주당투표를 더 저조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 밀고 있는 당원들이 거의 투표했다 해도 거짓은 아니지 싶습니다. 왜 이재명 당 대표 못 나오게 하는지 민주당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국민들께 신뢰를 못받아 정권교체를 당했는지 잘못은 자기들인데 왜 이재명이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지...

뉴스 보면 짜증 납니다. 지금 윤대통령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힘을 합해 국힘에 대항한다면 국민들 가려운 등 긁어준다면 얼마나 지지율 올라갈건데... 그건 뒷전이고 자신들 공천땀에 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민주당의 실패의 책임은 기존 국회의원들입니다.

미영 : 공천시스템은 당원투표로

1. 공천시스템은 당원들 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 울산북구 이상현 의원이 공천에 돈을 받고 주었다는 말도 떠돌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재명 의원을 당차원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추진력을 응원

합니다.

jalee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공천시스템의 세부과정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선거패배는

선거 이전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허위증거 등 조국 장관 물어뜯기에 당했고,

또, 부동산정책만을 옥죄고 세금이 오르게 대한 조세저항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언론과 검찰 국정원까지 허수아비로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킬텐데 일 잘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분이 당대표가 되도록 단합해야 합니다.

대권까지 도전해서 승리해서 지금 검찰로 시작된 후퇴를 최소한으로 막고, 다시 상식적인 나라가 되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인숙 : 당원은 ~~~ 일심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아직은 결정하기보다 쇄신에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파이팅
기획부분도 아쉽네요

youn8421 : 민주없는 민주당, 개혁없는 민주당,

자기보신주의에 빠져 기득권 정당 이되어버린 민주당, 어쩌다 국힘의 탄핵으로 국회의원 이되었지만 다음 총선에서 누가 당원을 무시하는 민주당을 찍을것인가? 오직 이재명 뿐이다,

병옥 : 공천시스템 문제

1. 공천시스템 개선방안

국회의원을 당원들이 민주당 정신에 힘을 실어 국집에 부패 정치에 대응 좀 하라고 만들어 줬더니...

이낙연 계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당원은 니들이 이용만하는 존재냐? 당내후보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대선후보를 뽑았는데.... 이낙연과 그 계파들 승복안하고 협조는 커녕 남의 당 인간도 아니고, 뭘 도왔습니까?

민주당 공천시스템은 90년대에서나 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지만 잘 쳐먹고 당원 말과 뜻은 쳐 듣지도 않는 이런방식... 진짜 기가 찬다. 공천시스템 바꾸자고 현안에 싸인한 인간들아!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데? 그리고 무슨 대의원이 당원들 보다 권력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질않나... 니들 입맛에 맞고 같이 해쳐 먹으라고 그 자리 있습니까?

2. 지방선거 시당역할

대선 때 국민 60프로 이상이 정권교체였다. 이낙연이 나왔으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

그나마 개혁과 경제에 뛰어남 이재명 후보였으니 0.73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당원은 아프고 삶에 희망을 잃고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니들은 뭐했는데? 당원들만 애가 타고 발갈이 하고 별짓을 다하는데도 이재명이라서 안도와 줬잖아! 왜 이재명이 니들 눈엔 우스워보여서. 지는 국회의원인데 도지사 따위가 이랬겠지. 그럼 니들이 국집이랑 다르게 뭘데. 귀쳐먹고 당원 뜻 개무시 할꺼면 니들 뜻맞는 인간들이 나가라!

180석 줘서 제발 일 좀하라고 만들어줬더니.. 니들이 한게 뭘데 부동산, 윤석열, 검찰쿠테타 등등..

이런 것 하나 똑바로 못하고 무능인간들, 그들은 지선을 100%진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재명을 내세워서 다 덮어 씌우고 싶겠지.

3. 결론

니들이 싸인한 공천시스템 지키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어라. 진짜 마지막으로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당원한테 사과하고 이재명한테도 사과해라. 맨날 언론에서 사과만하지 말고...

두열 :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진 이유.

내가 누구인데 누가 나를 아주 거만하게 이래하다보니 지금도 거대 공룡처럼....

의원님들 조금 몸 낮춰주세요.

래도그 : 민주당의 미래는

민주당원이고 국힘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국힘당을 견제해주길 바래서 출마자 개개인은 잘 몰라도 무조건 민주당에 투표했어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이 하루 1건씩 욕먹을 이슈를 만들어 다들 사람 정책을 떠나 이재명 욕하기 바쁘더군요.

정권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국힘당에게 명분없는 출마로 이재명 이미지로 패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이미지로 앞으로 너무 안 좋은것 같습니다. 전과4범 이미지가 너무 큼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정 :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요?

자기들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지 않나요? 또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양보한다면서요?

약속은 지킬 생각도 없고 민생같은 건 관심조차 없는 국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민주당을 언제까지 지지해야 하나요?

지방선거 패배요인을 진짜 몰라서 묻나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라고 180석 몰아줬는데 이제껏 뭘했나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톨톨 뭉쳐도 힘든 싸움에 잘들 하시네요. 이제 정말 민주당의 무능함에 치가 떨려요

치웅 : 집단지도체제요?

양식에 맞춰 한참 쓰다가 법사위 기사 보고 다 지웠습니다. 집단지도체제요?

이재명 의원 당대표 체제로 안가면 저는 더이상 민주당 안 봅니다. 권리당원도 탈당 합니다.

대발이 :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원으로 있어면서 요즘 보니 한숨만 나네요.

내 나이 59세로 울주 부부당원인데 민주당 지지가 맞는지 회의가 생기는 요즘입니다.

국민의당이나 윤정부에서 자기들 갈길만 가고 문재인대통령 임기 때 있던 일들을 무조건 불법이니 위법이니 하면서 조작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는데 틀린것은 틀리다 라고 하고 이에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야당인 민주당에서 협치 운운하며 과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준다고 박홍근원내대표가 공식 선언을 하죠.

선거는 끝났는데 민생은 어디가고 지방선거 패배의 결과 반성문 내용을 토론하자고 합니다.

제발 내부 총질들 그만하시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172석으로 의석수가 모자라 힘이 없습니까?

제발 당원들을 팬덤이니 하면서 편가르지 말고 민주당도 지키고 국민 민생을 위한 해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주세요.

지공 : 민주당 20년 넘게 지지했다, 개혁하라고!!!!

왜 이재명을 안 도와줬고, 지금도 안 도와주냐?

민주당, 제 정신이나? 자기 안위밖에 모르는 능력 없는 수박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줄 아냐?

박지현은 대체 누구 아바타냐? 능력없는 이낙연이 떠내려갈건데 그 이바타냐? 국민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냐, 민주당????

개혁해라, 개혁. 이재명이 무조건 당대표 시키고 다음 대통령 만들어라!!!!

장길 : 비대위의 무능과 아집

지방선거자체를 지는 선거로 단정 짓고! 출발한 비대위의 졸속함과 특정인의 고군분투! 계파간의 졸렬함! 통렬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거 패배를 운운하는 중진들의 기득권 역시 심판받아 마땅하거늘.... 아직도 정신 못차린 계파 기득권들! 대놓고 윤통을 지지해도 어느 누구하나 질책않는 기득권들. 총선이 길지 않다는 걸 인지하시고, 여당을 향해 총질할 이때에 제발 당원의 충고에 귀 기울이시길. 그래도 사랑하는 민주당을 위해 다음 총선을 위하여 결집해주시길 🙏🙏🙏❤️❤️

명희 : 당원을 존중해주세요

이재명, 최강욱 보고 지지합니다. 제발 당원 의견을 귀기울여 주세요.

당대표! 당원의 지지대로 이재명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 울산 더불어. 민주당. 가족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번 선거의 패배는 각자 후보님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열심히 뛰어다니며 인사를 드리며 있는 힘껏 달려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의 단합이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께서 후보 출마를 하셨을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감을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게 잘할 수 있다는 의지만으로 믿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단합적이질 못했다는 점들이 패배의 원인·결과였습니다. 개인적인 팀원들의 문제점과 후보님들의 유세팀들의 원인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치만 울산 더불어민주당 팀원들의 문제점을 듣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을 좀 더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2024년, 2년후 국회의원 선거 분명하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에 끌려 다닐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심과 귀를 기울이며, 시민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뛰어다

니며 현장에서 더 듣고 판단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울산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항상 파이팅!!...하십시요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꼭 이길수 있도록 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반드시 이기십시요.
 나라를 살리고, 민심을 해아려 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더불어민주당 가족 여러분! 기필코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줍시다. 더불어민주당이 꼭 해냅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함으로 더 열심히 잘 해냅시다...^^

하자 : 민주당은 정신차리자

대선패배의 원인은 이낙연 대선 불복과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님 대장동 하고 상관 없는걸 이슈화 해서 언론에 험집나고 여론 안좋아지고 해서 대선진거 그리고 박지현 출당시키고 민주당을 위해 일하는 최강욱 의원님 보호하시고 집단지도체제는 권리당원으로 반대이며 비대위는 당규개혁을 하루 빨리해서 대의원1표권리당원1표 등 당개혁 해주세요.
 당대표는 이재명의원님 하셔야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제발 수박님들 찾아내어 출당시켜주세요. 당원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을 떠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재명의원님 바라보고 민주당 지키겠습니다

서햇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1. 문제점

기울어진 언론보도 / 분열 (이낙연 지지층과의)

2. 문제라고 느끼게 된 계기 또는 근거

이낙연 지지층이 전과4범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낙선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인물을 추대한 민주당은 망해야 한다는 등 카톡으로 나쁜 기사란 기사는 다 집단적으로 뿌리고 다녔음!
 고연령층은 이런 말에 세뇌되어 이재명과 민주당을 나쁘게 생각함!

3. 제기된 문제가 가지는 피해

언론의 기울어진 보도 및 역측에 대해 민주당의 단일한 대응으로 일반 국민이 사실로 인식

4. 제안 (개선 또는 해결 방안 /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제안)

국힘당은 하나를 물면 뉴스 볼 때마다 그 사안을 언급함! 국민들은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진실인갑다 생각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데 뉴스에서 계속 보도할까 생각하게 되어 어느 순간 진실로 인식함!
 민주당은 심각한 사안이 나와도 몇번 떠들다가 끝냄! 싸움을 할 줄 모름! 너무 답답함!

Taeyup : 민주당은 합치를...

책임론을 거론 하지 말고 합하려고 노력하시지요?

say :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 대의원제도 날리고 권리당원과 지지자 위주로 나가야 함.

민주당 수박들 다음 공천 제거하고, 이재명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

아니면 다음 정권도 같다 바칠 거임. 실망과 좌절속에서 마지막 나의 생각 기약없이 뱉아 봄.

소연 : 6.1 지방선거를 말하다

1. 문제점

- 1)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들의 무능력
- 2) 준비 안된 청문회

2. 문제라고 느끼게 된 계기 또는 근거

대선 때 이재명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발같이하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선거에 졌습니다. 지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양에 나온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다시 열심히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가족, 지인들에게 발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과 박지현의 불협화음과 불공정한 공천으로 인한 잡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시기와 맞지 않는 성비위 문제 제기과 지선후보들 무시하는 586용퇴론은 민주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이런 시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아무리 아마추어 비대위원장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제기된 문제가 가지는 피해

민주당은 당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힘과 같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원만 공격하고 이낙연계 의원들이 개딸이 강성지지자들이라며 당원들을 공격합니다.

3월에 들어온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탈퇴하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8월 전당 대회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큼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당원들의 의견 무시하는 민주 없는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4. 제안

이런 설문조사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견을 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답답했었는데, 당원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의 의견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이재명 지지한 것이지 민주당 지지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출할 때 민주당 기득권들이 뽑은 당대표가 아닌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길 : 지선에 대한 현안

계파에 휩쓸린 이번 총선! 절실함이 결여된 후보들의 구태의식.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국힘에게 저들적인 면모도 보여야 다음 총선전선에선 일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계파의 휩쓸린 정당)의 오명을 개혁의 변화로 이겨낼 때가 지금이라 생각해 봅니다.

해리 : 이재명 국회의원 아니였음 당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지방선거 누가 했습니까? 그나마 이재명 국회의원이 있으기에 민주당 김동연이 되었잖아요. 2년 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움추리고 있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압니다.

호철 : 사퇴하시는게 민주당이 사는 길입니다.

하정이 : 울산 시당위원장 교체를 요구 합니다

sinamsun :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패배보다 더 심각한 건 비대위원장을 누구 데려왔는지 너무 한심합니다.

저쪽이 이준석으로 성공했다고 우리도 데려오면 될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하수고 너무 하수입니다.

민주당의 실패는 인사에 있고 모두 눈치 보고 결단력이 없는 거고 또 어찌다 크게 결단하고 정책을 밀어 부쳤으면 서로 뭉쳐서 싸워야지 호도된 여론만 보고 서로 내부총질하고, 모 의원들은 방송나가 지만 의로 운척 비판하고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맨날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있으니 선거에 이길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건 민주당의 강력한 리더쉽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물러 터져서 자기 몸만 사리는데 어느 국민이 의지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강한 여당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어차피 국힘당 지지자는 우리가 뭘 해도 반대입니다. 제발 조중동에 놀아나지 마세요.

순호 : 대선과 지선 패배이유

이재명 대선 패배이유

1. 대장동 비리
2.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문제
3. 형수 형에게 욕설
4. 조카 살인변호 그냥 살인자인데 이재명은 데이트 폭력 실신 이약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호
5.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기본적인 인성 미달 윤석열과 별반 차이 없고 상대를 대하는 말과 행동 수준 미달로 민주당 후보로는 부적합함 오히려 국힘당 후보로 적합

지선 패배 이유

1. 대선 패배 후 반성과 평가 없이 송영길시장 출마로 연고 없고 명분 없는 지역구 출마
2. 지선의 선거의 수장으로 명분 없는 출마로 인천시장 패배.
전국선거 지원안되고 지원이 도움도 안 되고 혼자 지역구 의원됨 이게 말 되니까?

지영 : 박지현 아웃

대선에서 졌지만 이재명 보고 민주당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주당원 가입을 했다. 하지만 이젠 민주당은 끝난거 같다. 자기 잘못은 없고 이재명 탓만 하다니. 박지현은 헛소리만 하고 홍영표 등은 이제 이재명을 탓하기만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을 응원하지 않는다. 이재명만 응원할 것이다.

현희 : 이번 지선 참패 이유는? 이유없다 지는 게임.

흘러간 유행가 처럼 한물 간 듯한 ...민주당의 오만 나태함.. 대선부터지선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굳이 이유를 대자면 당내의 계파 갈등.. 싸움.. 분열..
 이러다 총선까지 패배할까 벌써 걱정이 앞선다.
 제발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하길 바란다. 밉던 곱던 지금은 그 길만이 최선!!
 일단 민주당을 살리고 봅시다 !!!

hd : 비대위의 막무가네식 공천

박지현과 윤호중의 비대위가 한 게 뭐 있나? 박지현은 지명패 들고 다니며, '나 비대위원장이요!'식의 완장 놀이와 사과나 하고, 당의 분열에 앞장섰고, 윤호중은 버젓한 경선이라는 제도가 있겠 만 자기정치 한답시고 자기 위주의 공천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지역구 관리 못하고 내 선거 아니니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개혁정치를 하라고 180석을 몰아 줘도 중도정치 운운하며 제대로 된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 시킨 게 없다.

뭐 하자는 거냐 대권 지방자치권 입법권 다 가지고도 썬생이 마냥 쫓아서 검사·판사 눈치만 보고, 협치·중도 만 외치고, 지지자는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는 것들은 이제 정치 그만들 하고 판일 알아들 보슈. 이렇게 가다가는 뭐지 않아 민주당은 민중당 됩니다 이상

한기 : 소위 친문이라는 분들은

소위 친문이라는 분들은 일한다고 고생했으니 이재명 의원께 맡기고 좀 쉬셔야 영원히 쉬면 더 좋고

Sm :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낙연계파와 박지현 퇴출 절실)

계파정치의 계파들. 이낙연 계파들의 불성실한 나쁜 정치...(이낙연,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설훈 등)

자기를 정치만하고 민주당 기득권들만의 저들의 카르텔이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원인입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치, 밖에서의 당원들간의 불소통, 소위 똥파리(윤석열지지자들)을 내치지 않은 문제점들... 이낙연을 아out 시키지 않은 최고의 걸림돌... 그리고 박지현의 조국, 최강욱 죽이기의 박지현 자기정치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입니다..

이낙연과, 전해철, 홍영표, 박지현을 퇴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ange : 6.1지방선거 패배이유

문제점과 이유

1. 비대위에서 선거를 도울 생각은 안하고 싸움을 해서
2. 송영길 공천을 안 할려고 꼼수를 쓰고 능력 있는 사람 있는데 자기 계파 공천을 주기 위해 컷오프시키는 등 제대로 된 공천을 하지 못한 공관위 때문
3. 이낙연과 함께한 계파들이 열심히 안해서 - 제일 화가 나는 지점임.
 이런 인간들이랑 국힘 국회의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제안

1. 중앙위에서 하는 컷오프 제도 개선 - 여론조사 50% 적용

2. 윤석열 찍었던 해당행위자 출당 조치
3. 당헌에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조항 만들기
4. 능력없는 여성, 청년 공천과 인기있다고 비대위원장 맡기는 일 금지
5. 집단지도체제 절대 하지 않기

정래 :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서민 정책으로 집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시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출 좀. 보증인없이 해주는 정책되어야 만 하는 바램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지만 — 집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갖지 못 합니다. 이 점 고려해서 서민들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코너링 :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참 아쉽기도 하면서, 열 받고 짜증 낮지만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음 합니다. 권리당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혜정 : 안녕하세요

대장동 의혹을 끄집어내 대선에서 패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무리들이 아직도 당권을 쥐었고 박지현 내부 총질 .. 싸움 ..등등

민주당이 꼴 보기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갔다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정말 원합니다

제발 이재명 힘들게 하지말아 주세요 ㅏㅏ

성림 : 댓글 등 디테일 함이 부족

보수 신문이나 사이트 등에 꼴통 머저리들만 댓글을 달던데 열성 민주 당원은 왜 없나요?

kimmk : 당원들이 내부와 왜 싸우는가?

1.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 있어도 기사화 안 되고 싸우는 것만 나온다.
2. 왜 힘은 있는데 협치를 주장하나 협치하라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다. 법사위 왜 주는가?
3. 당원의 투표로 선출되어야지 왜 표의 증가성이 틀린가.

영화 : 문제점 박지현

빨리 시간 안에 제명 또는 탈당 부탁드립니다.

혜영 : 이재명을 당대표로

이재명을 당대표 되기를 바랍니다

